

碩士學位論文

바다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

- 지역 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

2003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文 貞 殷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昌九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

- 지역 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ve Peculiarity and shape of the body Art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文 貞 殷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昌九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

- 지역 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ve Peculiarity and shape of the body Art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文 貞 殷

文貞殷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12月

審査委員長 백 미향 

審査委員 이수영 

審査委員 이창구 

국 문 초 록

인류의 태동과 함께 시작됐던 바디 아트는 고대 원시사회에서부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능적, 사회적 표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바디 아트는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 등을 통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신체 장식 방법으로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의식화된 행위이자 표현의 양식이요 예술과 인간이 조화된 독창적 예술이라 할 수 있다.

Body Art는 심리적, 신체적 보호 수단만이 아니라 본능적인 미적 표현의식의 발로이며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바디 아트는 집단 의식과 종교 의식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또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보호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에로티시즘 적이고 하위 문화적인 표현 특성도 있다.

각 민족의 Body Art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 민족의 독자적인 표식이나 문양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 환경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자기 민족의 시대적, 역사적, 종교적, 미적 생활 감정을 반영하여 그 민족의 기호성에 맞게 구성하였기 때문이며 바디 아트는 그런 의식을 반영한 상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민족적 사상과 예술적 혼은 신체를 생동감 있는 예술품으로 바꾸어 놓았고 많은 조형 예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문명과 의복의 발달로 인해 바디 아트의 상징적 의미는 축소되었고 미의 개념도 변화하여 영구적 신체장식의 방법은 하위 문화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새로운 미의식이 대두되고 일부 계층에 의

해 간헐적으로 이용되었던 Body Art가 하이 패션에까지 도입되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아 부상하게 되었다.

하이 패션으로의 Body Art의 도입과 스티커 문신(Tattoo Seal)이나 크리스탈 문신, 헤나 같은 일시적 장식 방법은 바디아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공헌을 하였고 대중화를 불러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디아트의 예술적 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현대의 바디아트는 헤나, 스티커, 크리스탈, 반영구적 화장 등을 포함한 문신과 메이크업 및 바디 페인팅, 피어싱, 그리고 공연이나 패션쇼에서의 ‘분장’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는 창조적 모티브(Motif)를 제공하여 타투룩(Tattoo look)이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나 패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적 의식세계의 표현을 위한 과정으로서만이 아니라 무대예술과 전위 예술의 한 분야로서도 인정받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의 바디아트는 오브제의 기용에 있어서 다채롭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Body Art 의 대중화와 보편화에 더욱 기여 할 것이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조형 예술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도록 할 것이라 여겨진다.

목 차

국문 초록

I.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의의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II. 바디 아트의 이론적 고찰	5
1. 바디아트의 개념	5
2. 바디아트의 예술적 범위	7
2. 바디아트의 기원과 변천	9
III. 바디 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20
1. 지역에 따른 바디아트의 표현 특성과 형태	20
2. 바디아트에 나타난 전통 문양과 색의 의미	56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디아트의 형태와 특성	71
4. 바디 아트의 예술적 가치	81
IV. 결 론	84
참 고 문 헌	88
ABSTRACT	92

그림 목차

<그림1> white lady, 사하라 바위 예술	18
<그림2> 반흔 문신	18
<그림3> 켈로이드 상흔	18
<그림4> 'Snake' 바디 페인팅	18
<그림5> 'Yves Klein'의 바디 아트	19
<그림6> 차드족 여성의 입술 변형	19
<그림7> 파푸아 뉴기니아인의 피어싱	19
<그림8> 헤나 잎과 헤나 문신된 손	19
<그림9> Loma 소녀의 성인식을 위한 페인팅	26
<그림10> Xhosa족 남성의 성년 의식	26
<그림11> Nuba족 남성의 페인팅	26
<그림12> Surma족 남성의 분장	26
<그림13> Bororo족 남성의 분장	27
<그림14> Nuba족 여성의 상흔	27
<그림15> Mangbetu족 남성의 헤어와 신체 장식	27
<그림16> Yoruba족 여인의 주상	27
<그림17> 뉴 헤브리스 제도 남성의 장식 상흔	33
<그림18> 뉴기니아인의 Ceremonial Decoration	33
<그림19> 말케사스의 문신을 담은 그림	33
<그림20> 마오리추장의 Moko 문신과 지팡이	33
<그림21> 입회의를 위해 페인팅한 오스트레일리아 소년	34
<그림22> 파푸아 뉴기니아 소녀의 Ceremonial Decoration	34
<그림23> 남동부 뉴기니아인의 장식 패턴과 마스크	34
<그림24> 파푸아 뉴기니아인의 장식	34
<그림25> 같은 전투 공적을 가진 Yanktonai 족과 Assiniboine족의 투사	38
<그림26> Kayapo인디언의 Kwarup 축제 분장	38
<그림27> Xingu 족의 big cat pattern	38
<그림28> Ucayali족 소녀의 미로 문양	38
<그림29> 독수리	39
<그림30> 항해하는 배	39

<그림31> 장미	39
<그림32> 하트와 장미 문신	39
<그림33> BC 1700 ~1550년대의 그리스 벽화	43
<그림34> 핑크 스타일	43
<그림35> 핑크족의 장식	43
<그림36> 파괴적인 느낌의 메이크업과 피어싱	43
<그림37> AD 250-500 년대 일본 고분 출토 인형	47
<그림38> 아이누 여성의 문신	47
<그림39> 구니요시를 새긴 일본 남성 문신	47
<그림40> 가부끼극의 proud character 분장	47
<그림41> General Guan Yu	50
<그림42> White tiger	50
<그림43> 경극의 다양한 캐릭터	50
<그림44> 헤나로 장식한 라자흐스탄 신부의 손	55
<그림45> 힌두교인의 이마 장식	55
<그림46> Kutch 지역의 전통 문신	55
<그림47> Titi 문신을 한 소녀	55
<그림48> Berber족 신부의 siyala 장식	66
<그림49> Siyala 무늬로 장식된 발	66
<그림50> 마오리 추장의 색소 문신	66
<그림51> gond 여성의 전통 문신	66
<그림52> 나비 문신	67
<그림53> 빨간 장미 문신	67
<그림54> 푸른 장미	67
<그림55> 새	67
<그림56> 날개 문신	68
<그림57> 영웅 문신	68
<그림58> 나체의 여신	68
<그림59> 해골	68
<그림60> 한국적인 느낌의 호랑이 문신	69
<그림61> 용맹스러운 모습의 호랑이 문신	69
<그림62> 전통적인 느낌의 도깨비 문신	69
<그림63> 사이버적인 느낌의 도깨비 문신	69
<그림64> 등에 새겨진 용 문신	70

<그림65> 용 문신을 새긴 남과 여	70
<그림66> Red Vishnu	70
<그림67> Blue Vishnu	70
<그림68> 파당족 소녀의 목 장식	73
<그림69> 아프리카인의 목 장식을 모방 Alexander Mcqueen 1997 F/W	73
<그림70> 폴리네시아인의 헤어스타일	73
<그림71> 폴리네시아인의 머리장식 인용 John Galliano 1996 F/W	73
<그림72> 혼성 모방을 통한 장식 Seredin Vassiliev 2001 S/S	75
<그림73> 페티시즘적 장식 Seredin Vassiliev 2001 S/S	75
<그림74> 의상을 통한 바디 페인팅 효과 Seredin Vassiliev 2001 S/S	76
<그림75> 나비와 장미	76
<그림76> 배꼽과 성기 피어싱	76
<그림77> 유두 피어싱과 문신	76
<그림78> 핑크족의 패션과 장식	78
<그림79> 문신과 피어싱	78
<그림80> 타투룩을 통한 문신 효과 Jean Paul Gaultier 1996 S/S	80
<그림81> 장미 문신의 에로틱한 이미지 Romeo Gigli 1996 S/S	80
<그림82> 가발을 이용한 일시적 두개골 신장 Givenchy 1997 F/W	80
<그림83> 헤나 문신된 손	80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의복이 발달하지 못하여 신체장식이 유일 수단이었던 원시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양한 방법과 재료, 색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장식함으로써 본능적, 사회적 표현 욕구를 충족 시켜 왔다.

고대의 신체장식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족간의 구별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자신의 신분과 부의 정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종교적, 주술적인 의식 등을 목적으로 신체(身體)를 채색하고 변형하며 상흔(傷痕), 제거, 문신(文身)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신체 장식의 형성과 의미는 언제나 특별한 문화의 표현이다. 장식 행동은 이성적인 부분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행위자의 문화적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장식 행동은 사회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

인간은 신체 자체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소재로 바라보면서 신체의 의복으로서의 의미 전환을 통해 나름대로의 조형성을 추구하였으며 비합리적이며 억압되어 왔던 인간 내면의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인간 신체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재조명하게 한다.

문화가 발달하면서 시대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신체를 변형하고 훼손시키는 방법보다는 자연 그대로 가꾸고자 하는 미의식이 발생함으로 인해 신체 장식의 의미가 다소 축소되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화가 인정되고 존중받으면서 현대인들은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따르기 보다 개개인의 개성을 더욱 중요시하게

1) 빅토리아 에빈, 『신체 장식』, 임숙자 역 (서울 : 경춘사, 1988), p.8.

되었다. 하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일부 특정인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바디 아트는 최근 들어 거리 스타일이 상향 전파되고 주류와 비주류간의 경계가 와해되는 탈 중심적인 현상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패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얼굴에서 신체로까지 미적 표현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예술 형태인 바디 아트(BODY ART)는 더욱 각광 받고 있으며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디 아트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바디 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이상 하위 문화의 상징물로서가 아닌 패션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한 영역임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론적 배경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바디 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의 이해와 예술적 가치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바디 아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무늬(Pattern) 또는 문양은²⁾ 각 민족의 조형 의지로서 그것의 실천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시대적, 미적 생활 감정 등이 그대로 반영된 상징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문양의 발생과 발전 과정은 한 민족과 국가가 지역적 정착이 성립되었을 때 그때의 풍토와 환경특성과 함께 민족 특유의 사상이나 종교적 이상관 혹은 형상에 대한 미적 의식의 발로로서 그 민족의 기호성에 의해 구성된다.

즉 문화의 흐름에 따라 타 지역, 이민족으로부터 전파된 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문양을 받아들이는 민족의 감정이 투영됨에 따라 그 나라의 풍토에 맞게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동화되고 성장 발달함으로써 그 나라 나름대로 독자성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구분과 시대 변화에 따른 바디아트의 표현적

2) 본 논문에서는 무늬(Pattern)와 문양을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특성과 각 민족의 전통적 장식방법 및 문양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들이 신체장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상징적 의미와 표현적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바디 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상징성을 더욱 살려 바디 아트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둔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원시시대부터 존재한 바디 아트가 미적 다원화와 주관화 경향의 대두로 소외되고 억압받으며 금기시 되었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³⁾ 예술적 분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예술 분야로서의 바디 아트 비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바디 아트의 개념과 예술적 범위 및 기원과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지역에 따른 바디 아트의 형태와 특성, 각 민족들의 전통문양과 색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바디 아트가 지니는 표현적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1995년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디 아트의 형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바디 아트와 순수 예술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바디 아트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은 신체 장식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문화, 예술, 패션에 관계된 다양한 문헌과 시각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자료들을 통해 시대와 민족에 따른 기원과 변천, 신체 장식 방법과 상징성에 관한 분석과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디 아트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는 선행 연구 자료 및 잡지, 각 분야의 전문 인터넷 사이트의 시각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현대 패션에 관계된 시각 자료는 국내·외 문신 사이트 10여 곳과 패션 전문 사이트인 firstview를 이용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3) 김주영외 2인, “현대 복식에 나타난 그라피티(Graffiti) 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 문화 연구, 제 5권 3호, 1997, p.377.

Ⅱ . 바디 아트의 이론적 고찰

1. 바디 아트의 개념

인류발생 초기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며,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습을 따르고 그것에 관련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왔다. 그 관습은 아주 오래 전부터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방법까지 아주 다양한데,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방법과 침투하지 않는 방법 또는 일시적인 장식과 영구적인 장식으로 나눌 수 있다.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않는 방법은 피부 표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신체 장식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신체 일부분이라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한 방법이다. 피부 화장이나 바디 페인팅, 헤나 염색, 장신구 달기, 머리 염색, 손톱 기르기에서 매니큐어 칠하기 등의 장식정도를 말한다.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방법은 색소를 이용한 문신 외에도 신체 일부를 늘리거나, 뚫으며, 자르고, 절단시키는 행위에서부터 골격 구조의 변화 등을 통한 장식 방법 모두를 포함한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분에 하는 화장 문신 또는 신체 문신과 피어싱, 다수의 목걸이 착용으로 목 늘리기, 컷볼 늘리기, 입술 늘리기, 뚫은 구멍 늘리기, 두개골 늘리기, 발목 늘리기 등의 지속적인 변형과, 거세, 할례, 치아를 뽑거나 갈고 박는 절단 행위도 있다.⁴⁾ 장식 형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도구가 이용되어져 왔으며 그것들은 실로 놀라운 것들이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느 한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원시인들은 고대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신체예술, 관습을 지키

4) 이승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 장식의 미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p.7.

며 현재까지 되살리고 있어 그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과거의 원시인들은 신체 장식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신체적 보호의 수단과 주술적인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신체 장식 방법을 단지 고대 원시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목적에서만이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는 배제되었지만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자아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 바디아트는 얼굴과 몸에 채색을 하는 Face 및 Body Painting, 물감을 새겨 넣어 장식하는 문신, 구멍을 뚫어 장식하는 피어싱, 피부 표면을 염색하는 헤나로 범주화되며 신체에 장식된 Body Art는 때때로 조명과 음악과 의상 또는 소도구와의 조화와 함께 주제에 맞는 표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포함하는 예술 관념적인 차원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시각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양식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예술과 삶의 조화를 이뤄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식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장식하는 예술을 바디아트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념화 해보면 '바디아트는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 등을 통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신체 장식방법으로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의식화된 행위이자 표현의 양식이고 예술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독창적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인체를 감싸거나 장식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릴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체장식 또는 바디아트(Body Art)라 일컫는다.

그러나 신체장식은 바디아트보다는 좀더 광의의 개념으로 머리 장식, 보석이나 장신구를 통한 장식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고자 하며 바디아트는 상흔, 채색, 문신, 제거, 변형 등을 통한 장식 행동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상흔, 문신, 헤나, 페인팅, 제거(피어싱), 신체 변형을 중심

으로 고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바디아트의 예술적 범위

스코틀랜드 철학자 카알라일은 기아와 복수의 고통이 아물고 나면 다음에 찾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장식이었다고 하면서 미개인의 최초의 정신적 욕구는 장식을 함으로써 우월감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 장식의 욕구는 본능적이었으며 장식을 통한 자신들의 미의식의 발산은 미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성(聖)과 속(俗)이 섞여 있는 세계에 살았던 고대 원시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믿었다. 원시 사회에서의 상징의 의미는 그들의 주술적 신앙이나 토템에 따라서 선택되었고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함으로서 그것을 현실로 재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프리카 인들도 이러한 그들의 사상을 독특한 문양에 담아 신체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였고 이것은 신체를 생동감 있는 예술품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그들이 신체에 장식하는 방법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주술적 의미의 가면과 상, 의식의 물건들은 각종 재난을 방지하고 종족 보존에 대한 욕망,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신령함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신체장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해 냄으로서 시작된 문양들과 주상들은 많은 조형예술에 영향을 주었고 모던 아트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에 이르렀다.

몰라(Mola)문양만 보더라도 브라질의 카라하(Caraja)족과 파나마의 다리엔(Darien)지역의 초코(Choco)족 같은 인디오 부족들이 과거와 현재에도 행하고 있

5) 이정옥 외 3인, 『패션과 의생활』, (서울 : 형설출판사, 1995), p.28.

는 바디 페인팅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몰라는 꾸나(Cuna 또는 kun) 인디오만이 만드는 독특한 원주민공예로 원색적이며, 개념과 디자인에서도 독창적이고 제작기술도 복잡하다. 초코족은 꾸나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부족으로 현재까지 바디 페인팅을 해오고 있는데 그들은 얼굴의 아랫부분을 꼭두서니과 식물의 자주색 염료를 이용하여 귓불 바로 아래부터 입 끝까지, 턱 위와 아래로 턱과 목이 만나는 지점까지 무늬를 만들어 칠했으며 양 가슴에는 원형 또는 나선형 문양을 하고 있다.

꾸나족 역시 최근 280여년 전까지는 바디 페인팅을 하였다. 현대 복장으로서 점진적인 변화를 하게된 꾸나족은 원색의 몰라를 통해 다시 한번 신체에 그렸던 기호적 문양들로 회귀하게 되었다.⁶⁾

현대의 바디아트는 헤나, 스티커, 크리스탈, 반영구적 화장 등을 포함한 문신과 메이크업 및 바디 페인팅, 피어싱, 그리고 공연이나 패션쇼에서의 ‘분장’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고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는 창조적 모티브를 제공하여 타투룩(tattoo look)이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나는 등 패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또한 미적 의식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위적 예술의 분야로도 자리잡고 있다. 작품의 세계가 사회를 비판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인체와 자연을 찬미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간에 살아있는 영혼과 육체에서 품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율동감은 생명력이 없는 다른 예술에 비해 훨씬 강한 메시지와 감동을 준다.

바디 아트 중 바디 페인팅과 문신은 3차원의 동적인 형태 내지는 이미지의 연속체로 보여진다. 또한 Show적 이미지 강화를 위해 의상과의 조화를 피하거나 그 의상과 장식되는 소품에까지 바디 아트의 영역이 확대되기도 한다.

무대예술의 대표격인 연극과 무용에서도 바디 아트는 나타난다. 극중 인물이

6) by frederick w.shaffer 『MOLA DESIGN, 인디언 전통문양』, p.144.

연극이나 무용 무대 위에서 어떤 포즈와 자세를 취하는 것만이 연기의 전부는 아니다.⁷⁾ 연극이나 무용은 음악과 조명 등 여러 요소의 조화로 표현되는 종합예술의 하나이며 여기에서 바디 페인팅과 캐릭터 분장은 신체의 일부 혹은 전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몸짓의 다양한 패턴 즉, 특정 인물의 특정 행위나 특정 장면을 상징하고 그것을 재현하는 몸짓에 도움을 주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패션쇼에서의 바디 아트는 초기에는 의상의 보조역할에 불과해 일반적인 화장의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점 환타스틱한 분장으로의 과정을 거쳐 최근에는 패션쇼의 감각적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 다양하고 독특한 패턴의 Body Art가 얼굴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되어 표현되어지고 있다. 세계적 패션쇼인 오프꾸뛰르, 프레타포르테, 도쿄 컬렉션 그리고 서울 컬렉션 등에서 그런 형태를 감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디 아트가 패션쇼에서도 접목과 응용이 가능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3. 바디 아트의 기원과 변천

한 시대의 문화와 역사는 현존하는 것이지만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처럼 바디 아트의 역사 또한 원시 인류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⁸⁾

인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신체에 장식을 하였는지 밝히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나 고대 브리튼 사람들이 녹색으로 그들의 몸에 염색을 했다는 기록이나 BC 6000년 전 사하라의 바위 예술 등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을 통해 고대 인류가 어떠한 목적에서이든 태고 적부터 치장했다는 사실을 들어 화장의 기원을 인

7) 심우성 편역, 『신체의 미학』, (서울 : 현대미학사, 1997), p.112.

8) 강병석, "Total Fashion으로서의 make-up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4), p.3.

류의 생존과 같은 시기로 보고 있다. <그림1>

신체 장식설의 주장자인 스타르는 “지구상의 모든 종족 중에서 의복을 착용하지 않은 민족은 있으나 장식을 하지 않은 종족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장식이란 의복이나 장신구를 몸에 걸치거나 색료를 이용해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문신이나 상흔을 통해 몸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것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신체장식의 기원은 여러 학설로 설명되는데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타인에게 자신의 미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생태적 미화 본능설과 자신의 힘과 용기, 능력,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트로피즘, 상대방에게 공포와 위압감을 주기 위한 테러리즘, 장식을 통해 악은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 토테미즘,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서 시선을 끌어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에로티시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신체 장식의 기원을 어느 한가지 설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각 민족에 따라 장식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장식의 기원은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 것으로 보여진다.

1) 문신(文身)과 상흔(傷痕)

문신(文身)이란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이나 먹물을 사용하여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몸을 치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신은 먹을 사용한다고 하여 입묵(入墨)이라 불려졌고 글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하여 자자(刺字) 혹은 자문(刺文)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반흔 형성(Cicatrization)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⁹⁾

문신은 피부색에 따라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9)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10권, (서울: 두산동아, 1996), p.561.

피부색이 옅은 종족에서는 색소를 사용하는 고유의 문신이 행해지고 피부색이 아주 짙은 종족에서는 상흔(傷痕) 또는 난자(亂刺)의 방법이 이용되었다.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게 문신의 대응물로 쓰이는 상흔은 면도칼이나 송곳 등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에 원하는 모양의 상처를 낸 뒤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생기는 흔적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방법이다.

이때 피부를 베어 낸 뒤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직선의 흉터가 생기는데 이를 ‘반흔 문신’ 이라고 한다. <그림2>

피부 깊숙이 상처를 낸 뒤 상처의 부위를 솟이나 재, 모래 등으로 문질러 흉터가 부풀어오르게 하여 만든 것은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으로 반흔 문신에 비해 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 <그림3>

색소를 사용하는 고유문신은 지워지지 않도록 일정한 색소를 피부에 물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피부의 진피층에 색을 주입한다. 표피에 색을 주입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빠지게 되는데 근래에 확산되고 있는 반영구적 화장 기법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3~5년 정도 색을 지속하게 한다. 그러나 피하조직에 색을 주입하게 되면 많은 양의 피가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¹⁰⁾

색소를 이용한 문신은 살빛이 옅은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이용되는 색채는 흑색이 제일 많지만 현대에는 청색이나 녹색, 적색 등도 즐겨 사용된다.

B.C 2000년경의 것으로 추측되는 이집트 미이라와 세투1세 (재위 B.C 1317~1301)의 무덤에서 출토된 인형에서도 팔과 가슴 등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고 고대의 트라키아인, 그리스인, 갈리아인, 게르만인 들도 문신을 했다는 고전작가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문신은 오랜 역사에 걸쳐 인류에 적용되어 왔다.¹¹⁾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문신은 1769년 ‘Captain Cook’이 남태평양으로의 첫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 쓴 타히티(Tahiti) 일지에 소개되면서 유럽에 널리

10) <http://www.ktma.co.kr>.

11)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제10권, (서울: 두산동아, 1996), p.591.

전해졌는데 그는 이 책에서 Otahitan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Tattaw라는 관습과 시술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Tattaw는 많은 폴리네시아인 들의 언어로 두드리거나 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Tatu'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이 문신의 어원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랍어의 'Dapp'와 유사한 의미이다.

이 두 단어는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을 뜻한다.¹²⁾

다른 학설에 의하면 문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Right', 'Straight', 'Skilled'라는 의미를 가진 폴리네시아어 "Tatan"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¹³⁾

문신은 문화, 종족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며 때로는 주술적인 의례로, 범죄자의 표시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죽음의 상징적 의미로 표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년을 상징하며 결혼이나 출산의 때, 혹은 부적 대신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중세에 이르러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전파됨에 따라 문신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했지만 중동지역과 그 밖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행해져 왔으며¹⁴⁾ 십자군 원정에서도 원정군을 구별하기 위해 문신이 사용되었다는 문헌의 기록을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관례적으로 몸이나 얼굴에 문신을 했다.

문신을 할 때는 먼저 새겨 넣을 무늬를 미리 피부에 표시해 두는데 붓 같은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무늬를 그리든지 아니면 무늬를 새긴 목제 (木製) 스탬프를 눌러 찍는다. 유럽의 신석기 시대나 금석 병용기의 유물 중에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듯한 테라코타의 스탬프가 발견되었다.

보편적인 방법은 색소를 적신 바늘로 피부를 찔러 그림을 그리는 것(자문신-刺

12) 빅토리아 에빈, Ibid, p.83.

13) 『Fashion Theory Volume 3』 . Issue 1, p.81.

14) <http://www.sussas.com>

文身)이지만 캘리포니아의 몇몇 부족들은 굵힌 상처 안에 물감을 새겨 넣는 방법을 사용했고 북극 지방에 살고있는 많은 부족들과 대부분의 에스키모인들, 그리고 동부 시베리아의 몇몇 민족은 색소를 문힌 실을 바늘에 꿰고 이것을 피부 속으로 찔러 당겨서 모양을 새기는 방법인 봉문신(縫文身)을 행했다.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작은 갈퀴모양의 도구에 보통 솜을 사용한 색소를 문혀서 피부를 가볍게 톡톡 찔러 색소가 피부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¹⁵⁾

고대의 사람들은 가시 또는 생선의 등뼈, 뼈 조각 등을 사용해왔으며 좀더 작은 곡선은 새의 날개와 다리뼈를 이용하였다.¹⁶⁾

그 후 19c말 미국의 타투이스트인 사무엘 오레일리(Samuel o'reilly)는 문신 기계를 최초로 발명하여 1891년에 특허를 얻어내어 판매까지 하게 되었다.

오레일리의 문신 기계 발명은 시술 시간과 고통을 줄여 줌으로써 문신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현대에는 유행 주기의 빠른 변화로 인해 장식방법도 일시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스티커 문신(Tattoo Seal)이나 크리스탈 문신(Crystal Tattoo), 헤나 문신(Henna Tattoo) 등은 장식방법과 문양의 교체가 용이하다는 점과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더욱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2)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

바디 페인팅은 물감이나 진흙, 그 외에도 신체에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혹은 의도된 목적에 따라 채색하는

15) 『브리태니커대백과사전』, p.120.

16) 빅토리아에빈, Ibid, p.83.

장식 방법이다.

BC 5000 ~ 1500 년대의 사하라 동굴벽화에서 발견된 페인팅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바디 페인팅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원시시대의 바디 페인팅은 외모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든 다른 부족과의 구별을 위해서든 또 종교적 의식으로 사용되었든 간에 장식방법이 점점 더 기술적이고 세련되어졌다.

오세아니아 인들은 풍요로운 자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재료들을 이용하여 형형색색(形形色色)으로 신체를 아름답게 채색하였으며, 각 민족들은 각기 자신들만의 상징성을 지니는 페인팅을 하였다. 이러한 원시 바디 페인팅은 발전, 쇠퇴를 거듭해 오다가 비로소 문화 예술로 표현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6년이며 아트 디렉터인 리트에 의해 재 시도되기 시작하여 발전되었고 나아가 말이나 글, 음악, 행위의 표현은 이제까지 끊임없이 행해져 오고 있으며 원시적으로 발생한 바디 페인팅도 그 맥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¹⁷⁾ <그림 4> 또한 회화에서 볼 때 프랑스 미술가 이브 클렌 (Yves Klein)은 푸른 물감을 몸에 바른 나체의 여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시에 따라 수직 수평의 화면에 자신의 신체를 찍어내도록 하는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 같은 현대 미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는 바디 페인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그림5>

3) 변형과 제거

문신, 상흔, 페인팅 등은 피부 상에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던 장식인데 비해 제거나 변형을 통한 장식은 신체의 일부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형태 만들기 또는 모양형성으로 더 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영구적인 신체 장식 방법이다.

17) <http://www.korea.makeup.co.kr>

제거란 입술, 볼, 코, 귀 등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손마디, 치아 등 신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장식하는 방법을 말하며 변형은 신체의 일부를 변화시켜 장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변형을 통한 장식은 여성에게, 제거를 통한 장식은 남성에게 많이 이루어졌다.¹⁸⁾

B.C 1500년 이래로 패션테마의 하나가 된 변형은 미국 북서부 인디언들의 두개골의 신장, 미얀마 파당(Padang)족의 팔과 목의 신장, 차드(Chad)족의 입술의 신장, 중국의 전족,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코르셋 등에서 나타난다. <그림6>

각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변형 결과의 다양성은 미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변형과 절단의 방법에는 절개(切開), 천공(穿孔), 완전 또는 부분적 제거, 소작법, 박리(剝離), 부착, 이물질의 삽입, 압축, 확대, 전환, 확장 등이 있고 이들 방법중 한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쓴다.

신체를 고의로 변형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인데 주술이나 의학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름다워지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더 많다.

관습에 따라 몸을 변형하는 경우는 제물로 바치거나 고행을 하는 종교와 관계가 있거나 마술로 몸을 보호하려는 행위, 애도의 표시, 서열이나 지위 또는 단체의 일원이라는 표시, 허세, 형벌 등과 관계가 있다. 관습에 따른 신체 절단(제거)은 보통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행한다. 신고식, 결혼식, 장례식 등 의식의 일부로 절단하기도 하고 무거운 죄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법 행위를 벌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¹⁹⁾

18) 유송옥외 2인, 『복식문화』 (서울 : 교문사, 1996), p.16.

19) <http://preview.britannica.co.kr>

4) 피어싱 (Piercing)

피어싱은 몸의 일부를 구멍내어 그곳에 각종 장신구로 치장하는 장식 방법으로 고대로부터 현대에까지 이어지며 사랑 받고 있는 바디 아트 일종이다.

피어싱의 유래는 의복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던 부족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초의 피어싱은 용감함의 표시로써 유두 피어싱과 기능적으로는 외투를 잠그는 수단으로 피어싱을 사용했던 로마인들에 의해 시행되어져 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거운 귀걸이를 착용하여 귓불을 늘어나게 하거나 한 귀에 두 개의 귀걸이를 한 미라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원시인들은 그들의 귀나 코, 입술을 뚫어 동물의 뼈나 깃털, 쇠붙이, 막대기 조개껍질 등을 끼워 장식하였으며 인도의 성전인 'Karma Sutra' 에는 성기 피어싱을 'Apadravya' 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⁰⁾ 이러한 행위는 보르네오에서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알려져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귀, 코, 입술, 눈썹, 혀 등 얼굴의 모든 곳과 배꼽, 유두, 성기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모든 곳에 구멍을 뚫거나 보석장식을 하고 있다. 현대의 바디 피어싱은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는 약화되었으나 자아표현과 심미적이고 에로티시즘적인 요소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하위 문화 집단에서는 아스마트족의 모습이나 뉴우기니아인 들처럼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함으로써 혐오스럽게 장식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그림7>

5) 헤나(Henna)

헤나 문신은 라소니아 이너미스 (Lawsonia inermis)라는 식물학상의 이름을 가

20) <http://www.beegy.com>

진 헤나 잎을 가루로 만들어 물과 혼합한 뒤 피부에 물들이는 염색의 일종이다.

이것은 헤나 잎에 있는 탄닌산 성분이 가지는 자연 염색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말레이시아까지의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면서 그것의 명칭 또한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나 주로 아랍어로 ‘헤나’ 또는 인도어로 ‘멘디’라 불려진다.²¹⁾

5천년 전부터 인도나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에서는 헤나를 이용하여 몸에 그림을 그리는 관습이 있어왔는데 이것은 헤나 물을 들인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 축복을 주는 의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림8>

스스로를 방어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며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제공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헤나는 아프리카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축제와 결혼식 등 관례적인 의식에 사용되어졌으며 일부에서는 악마와 질병을 쫓아내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해열제로 쓴 종족도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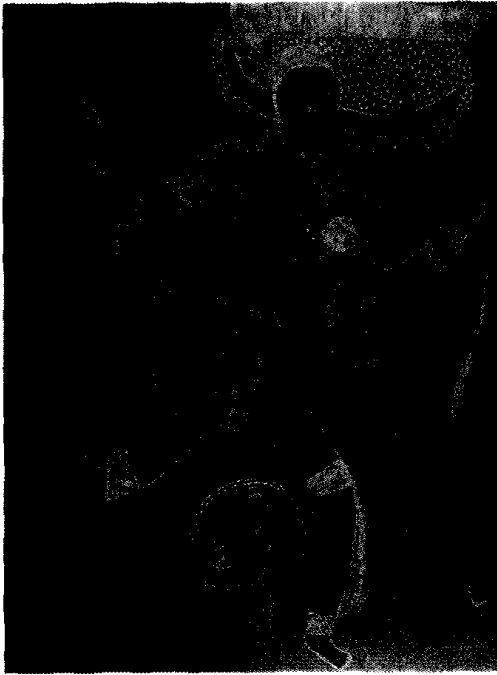
헤나의 무늬는 아주 다양하며 다양한 디자인은 건강한 육체, 풍요로움, 방어, 정신적 교화 등과 같이 각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²³⁾

현재 헤나는 단순한 미적 기능으로서 손, 팔, 다리, 발 등 신체 여러 곳에 장식되고 있는데 붉은 색에서 어두운 갈색까지 다양한 색으로 표현 가능하며 주재료가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고 고통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신체 장식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21) 본 논문에서는 헤나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2) Rufus c. Camphausen , 『Return of tribal』 , (PARK STREET PRESS, 1997), pp.47~48.

23) 이승은, Ibid, p.23.



<그림 1> white lady, 사하라 바위 예술



<그림 2> 반흔 문신



<그림 3> 켈로이드 상흔



<그림 4> 'Snake' 바다 페인팅



<그림 5> 'Yves Klein' 의 바디 아트



<그림 6> 차드족의 입술변형



<그림 7> 파푸아 뉴기니아인의 피어싱



<그림 8> 헤나 앞과 헤나 문신된 손

Ⅲ. 바디 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1. 지역에 따른 바디 아트의 표현 특성과 형태

1) 아프리카 (Africa)

아시아대륙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륙인 아프리카는 전 세계 총 지표면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민족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신체 장식의 모습이 나타난다.

질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상흔이나 변형, 채색 등의 방법을 통해 장식하는데 집단 자체의 정의에 따라 특별하고 구별이 명확한 상징성과 애용물을 갖고 있다. 민족 간에 행하여지는 특이한 머리형이나 귀걸이, 코걸이, 팔찌 등은 계급이나 신분, 부족을 구별하는데 이용되었다. Face-Painting이나 상흔 등을 통해 표현되는 그들만의 장식행동은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들만의 독자적인 언어요 상징이기에 외부의 다른 이들은 어떤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장식의 가장 정확한 형태는 제식 행사와 의식행사에서 보여지며 이 장식은 오랜 준비와 많은 비용이 든다. 의식을 행함에 있어 참가자 개인의 외모가 중요하므로 따라서 장식의 중요성도 크다.²⁴⁾

Guinea 지역의 소녀들은 성인식 동안 부족민과 떨어진 거주지 주변의 미개간지 캠프에서 생활하며 통과예식이 있기 전 하루나 이틀동안 선택된 화가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몸에 그림을 그리고 의식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선택된 화가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가

24) 빅토리아 에빈, Ibid, p.59.

죽들이 그의 딸이 최상의 예술가에 의해 최고로 그려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²⁵⁾ <그림9>

가나 북부 지방에서는 성년식 과정 중 몸을 가로질러 격자 무늬의 하얀 진흙을 발라서 해골 모양을 그리며²⁶⁾ Xhosa족 사람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색으로 몸을 칠하고 매일 덧칠을 한다. 이것은 성인식 동안 그들이 사회를 벗어나는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암시한다. <그림10>

아프리카의 여러 집단에서는 신체예술을 통하여 각 나이 집단의 균일성을 표현하고 공동체의 희망을 육체로 나타냈다.

동아프리카의 목초사회가 그러했고 남부 수단의 Dinka족 사람들 또한 나이별 집단으로 나뉜다. 그들이 성인식을 치르고 어른이 되었을 때 젊은 남자들은 깊은 빨 형태 혹은 평행선을 그들의 앞이마에 표시한다. 성숙됨을 나타내는 이런 표시는 착용자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기에 충분히 용감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⁷⁾ 나이가 많은 집단의 집단원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장식품을 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수단의 누바족은 가장 어린 남자들이 붉은 황토로 장식하고 단순한 헤어스타일인 반면에 나이 먹은 연장자들은 더 화려한 색을 사용하고 머리 형태는 정교하다. <그림11>

연장자들은 검은 색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검은 색은 적의 사악한 눈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적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연장자들이

25) Karl Groning, 『Decorated Ski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6), p.169.

이 소녀는 가장 유명한 Loma 예술가의 한 사람인 Gadu Beayogui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입을 가로지르는 선은 소녀들이 춤이 끝날 때까지 통과예식동안 침묵을 지켜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이 끝난 후 몸에 그려진 그림의 색이 연하게 변했을 때, 소녀들은 어른으로서 결혼할 수 있는 여자로 간주된다.

26) 빅토리아 에빈, Ibid, P.59

27) Karl Groning, Ibid, p.148.

더 나이가 들어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장식하는 것을 중지한다. 그 대신 천으로 몸을 덮고 머리는 삭발한 상태를 유지한다. 몸이 노쇠하면 더 이상 신체적 매력을 지니지 못하므로 노출은 하지 않게 된다.²⁸⁾

또한 남부 에티오피아(Ethiopia)에서는 깃털을 귀한 것으로 평가하여 장식하였는데 젊은이들은 깃털을 서로 교환하고 부족의 연장자들은 젊은이들로부터 특별히 좋은 종류의 깃털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물론 부족사회에서 신분과 지위를 정하는 기준이 ‘나이’ 만은 아니다. 운동경기 또는 싸움에서의 업적이 기준이 되기도 하며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신체장식을 하게 된다.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사회 즉,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동일한 재료로 집을 만들고 의복도 기후나 유용성에 따라 공동으로 함께 입는 사회에서는, 신체 장식이야말로 신분과 세력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마사이(Masai)족의 팔과 다리의 문양은 전사들의 전과를 표현하는 기록이다. 마사이 병사들은 그들의 몸에 그림을 그리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종종 그 형태는 영웅화된 행위를 나타내거나 성공한 사냥꾼으로 보이도록 상징화되었다.

에티오피아 남서쪽 Omo강 주위에 목가사회를 이루고 있는 Surma의 젊은 남성들은 Donga라 불리는 막대기 싸움을 하기 전에 물과 분필의 측면을 이용하여 그들의 얼굴과 몸에 바른 후 손가락으로 선의 형태를 만든다. <그림12>

이것은 얼굴과 몸을 선으로 된 형태로 장식하고 자신의 마을을 나타내는 그룹의 인원을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나 주된 목적은 개인의 힘을 강조하고 싸움 전에 그들의 대항자에게 공포(公表)하기 위한 것이다.

여자나 남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경우를 위해 그들의 몸과 얼굴을 장식한다. 남부 수단에 위치한 많은 Shilluk인은 낚시 갈고리로 앞이마의 피부를 떼서 끌어당기고 날카로운 칼로 피부를 잘라낸 뒤 그 부위를 진주로 장식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절개의 형태는 Shilluk사회의 일원임을 표

28) Karl Groning, Ibid, p.138~144

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²⁹⁾

또한 아프리카인 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가문을 타 가문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얼굴에 각기 독특한 형태의 상흔장식을 하였는데 때문에 개개인의 소속 가문은 물론 출신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으며, 유사시 잃어버린 어린이와 친인척을 식별 가능하게 했다. 노예 무역 시절에는 한 때,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양의 상흔을 하기도 했다. 상흔은 유아기 혹은 통증에 민감하지 못한 어린 시절에 행해졌으며 때에 따라서는 의식에 따라 새겨 넣기도 하였다.

나이지리아(Nigeria) Igbo의 Ibo부족인 들은 용맹을 상징하는 Inch Mark를 완전하게 갖추어 지니는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여겨왔다. 가끔은 눈꺼풀에까지 행하는 이 상흔은 얼굴의 위 부분 전체에 나란한 줄이 길고 깊게 나있는 형태로 젊은이들이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남성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상흔이다.

이 외에도 Yoruba 부족인들 사이에 ‘Fin-fin Cuts’ 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몸 거의 전체에다 기하학적 무늬를 형성하는 많은 상흔을 만든 것을 이른다. 이 상흔들은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일부분씩 차례차례 단계별로 만들며 상흔의 문양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상흔을 목탄과 인디고 염료로 문지른다.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의미를 지닌 대부분의 상흔은 결혼과 탄생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술적 목적을 지닌 것들도 있다. 등과 어깨 위로 하나 혹은 두 줄의 가는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의학적 효능을 지닌 향신료 가루로 문질러서 만든 ‘Abiku’ 라는 표식이 그 예인데 이 상흔은 어린이를 영적(靈的) 세계로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행했으며 그 주술적 힘을 강화하기 위해 쇠사슬을 어린이의 목에 감고 작은 방울을 그의 발목에 매달았다.³⁰⁾

아이보리 해변의 무당과 가나의 여 제사장은 흰 진흙을 얼굴에 칠하였는데 흰

29) Karl Groning, Ibid, p.150.

30) Garba Ashiwaju, E.U.Enem, S.O.Duta 편저 『나이지리아의 신체장식과 복식』, 황 춘 섭 역, (서울: 경춘사, 1993), p.11.

색은 ‘신’의 신성함을 표현한 것이며 흰 칠을 함으로서 악령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³¹⁾

남부 에티오피아의 하마르 족(族)은 소의 내장으로 그들의 몸을 문질러 신체장식을 하였는데 이러한 장식 방법이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행복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Woodabe족 여인들의 턱 부분의 문신 또한 악마의 눈으로부터 이 여인을 지켜준다는 주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³²⁾

상대방의 관심이나 시선을 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채색이나 신체장식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아프리카의 Woodabe 집단의 남성들은 Geerewol 축제에서 여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미의 기준인 밝은 피부, 높은 이마, 좁은 코를 만들며 입술과 눈 주위 부분은 문신과 눈의 흰색을 밝게 하기 위해 검게 칠한다. <그림13>

누바족의 여성은 가슴, 등, 배에 좌우대칭의 기하학적 무늬를 새기는데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고 벤 다음 숯, 재, 모래 등으로 문질러 흉터가 부풀어오르게 만들었다.³³⁾ 이러한 상흔문신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였으며, 주로 사춘기 초기에 만들거나 아이의 출산 후 상흔을 덧붙여 만들었다. <그림14> 누바족의 남성 역시 남성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상흔문신을 하였다.

누바의 신체 도체에 사용되는 많은 도안은 자연 환경에서 유래되었으며 자연의 어떤 모습이 장식 도안의 한 부분으로 변모된다.

누바인들이 신체에 즐겨 그리는 기린은 그 동물의 특성을 지니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린의 고상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장식하고자 했다. 장식된 몸은 미학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졌으며 몸에 그린 기린의 형태는 장식

31) 빅토리아 에빈, Ibid, p.16.

32) 이승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 장식의 미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p.16.

33) 이효진,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TATTOO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 7권 제4호, 1999), p.57.

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장식은 신체적 결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³⁴⁾ 나이지리아의 Awaka에서는 여성이 이마의 아래 부분부터 콧마루에 이르는 일련의 상흔을 했다. 이 상흔의 형상을 보면 눈 옆 위치에 장미꽃 모양이 있고 눈 바로 윗 부분에 십자모양 혹은 두 개의 초승달 모양이 곁들여져 있다. 근래에 와서는 얼굴 상흔의 모양이 전통적인 것에서 패션성을 띤 것으로 변해왔다. 따라서 개개인 나름대로의 목적에서 하는 사랑의 표시도 발견된다. 또 태어날 때부터 상흔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요즈음에 와서 장식적인 상흔을 하기도 한다.³⁵⁾

아프리카 인들은 자신의 창조성과 예술적 자질에 대한 매개체로서 자신의 피부를 이용하였는데 다양하게 장식한 피부는 신체를 생동감 있는 조각품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끌어 올려놓았다. Mangbetu 족은 머리 장식의 상징적인 도안을 훌륭한 예술(특히 회화와 조각)로 발전시켰고 Yoruba인들의 목조 작품에서도 이런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림15,16>

신체 예술은 주로 사회적 구조와 세계의 관점과 인간 경험의 기본을 반영한다.

Yoruba족의 목조 작품에서는 얼굴에 어떤 문양을 규칙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Yoruba의 결혼할 여자에게 종종 시켰었던 절개의 표징으로 추정된다.

절개가 인간의 내적 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개의 표징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나무 조각을 통해 표현하고 반영하였던 것이다.³⁶⁾

Loma의 신체예술가들은 Body-Painting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종종 매우 혁신적인 새로운 예술 형태를 산출시킨다. 수년 전까지는 소녀들의 성인식 시기에만 해왔지만 보다 더 최근엔 여인들이 그들의 집 벽에 적용해오기 시작했으며 동아프리카 Nuba의 젊은 남자들의 충격적인 Body 예술은 주목할만하고 그들의 창조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³⁷⁾

34) 빅토리아 에빈, Ibid, p.74.

35) Garba Ashiwaju, Ibid, p.12.

36) Karl Groning, Ibid, p.165.

37) Faris,J.C, 『Nuba Personal Art』, (London : Duckworth, 1972), p.78.



<그림 9> Loma 소녀의 성인식을
위한 페인팅



<그림 10> Xhosa 족 남성의
성년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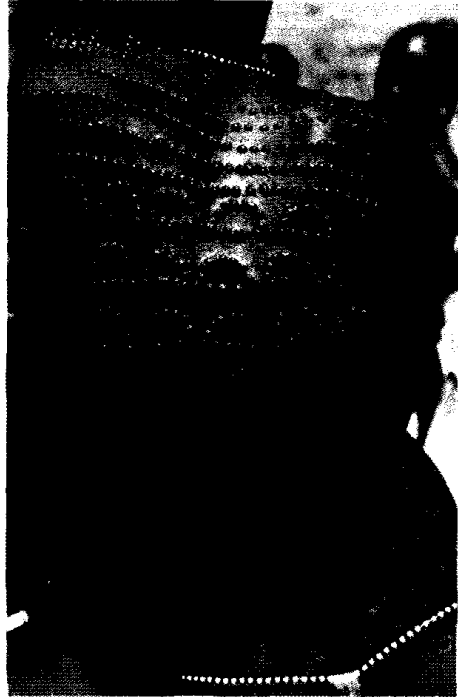
<그림 11> 누바족 남성의 페인팅



<그림 12> Surma족 남성의 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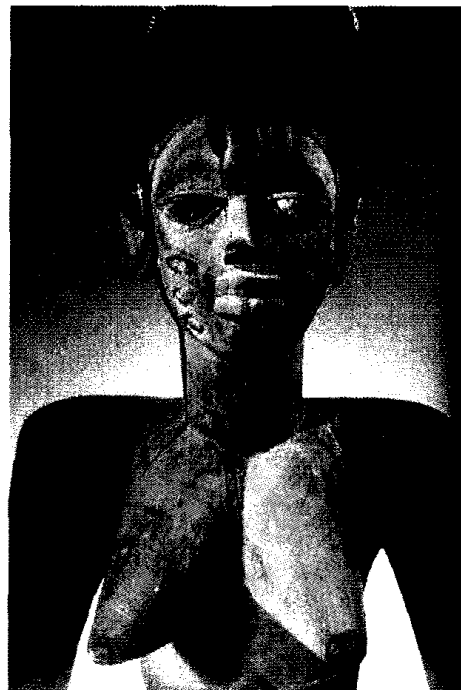
<그림 13> bororo족 남성의 분장



<그림 14> 누바족 여성의 상흔



<그림 15> Mangbetu족 남성의
헤어와 신체 장식



<그림 16> Yoruba 족 여인의 주상

2) 오세아니아 (Oceania)

오세아니아는 아메리카와 필리핀, 호주 사이에 위치한 태평양의 30,0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화적, 지리적으로 그들은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로 구분된다.

오세아니아는 머리, 코, 귀, 입술, 목, 볼, 엉덩이, 팔, 다리 등 신체 어느 곳이든 걸칠 수 있는 수많은 장식 유형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Mobile’ (움직일 수 있는)장식 영역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Body Paining이나 문신 같은 ‘Immobile’ (움직일 수 없는)장식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며 기술적으로 행해졌는데 주로 폴리네시아에서 이루어졌다.³⁸⁾

오세아니아에서는 자문신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멜라네시아 에서 가장 성하다. 산타크루즈 제도의 주민들도 반흔 문신 외에 얼굴이나 가슴 등에 자문신을 한다. 뉴헤브리디스 제도의 토인은 이마나 볼에 기하학적 무늬나 동물 무늬의 문신을 시술하며 별 모양의 장식적 상흔을 즐겨 만들었다.³⁹⁾ 〈그림17〉

폴리네시아의 주민들은 문신을 매우 소중히 여겼는데 그들 신화에 의하면 문신은 신으로부터 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장식이 제사나 의식에서 특별하게 존경받는 사람에 의해 행해져야 했으며 값이 비싼 형태는 번영과 수여된 명성의 표시였다. 또한 폴리네시아에서는 오직 피지제도의 여성들이 장식적 상흔을 만든다.

뉴우기니아에서는 많은 부족들이 문신을 하는데 특히 해안지방의 부족들에게 보급되어 있고 코이타족의 경우는 여성이 어렸을 때 시술한 것을 성장하면서 더욱 완성시켜 간다.

소규모의 영토에서 추장의 통치에 따라 생활하는 뉴우기니아인 들은 축제 때 돼지나 조개 가공품을 상호교환하고, 조개장식을 하여 부를 과시하였고 상대에게

38) Karl Groning, Ibid, p.71.

39) 두산동아 백과사전 연구소 편저 제 10권, Ibid., p.591.

위압감을 주기 위해 얼굴에 숯이나 어두운 색을 칠하였다.⁴⁰⁾ <그림18>

뉴우기니아의 하젠 산 원주민들은 의식행사 때에 깃털이나 조개 혹은 동물가죽으로 장식하는데 이러한 장식품들은 매우 귀중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각 집단의 남자들은, 받는 사람과 기증하는 사람을 구별지어주는 유사한 종류의 장식품들을 단다. 이 장식품들은 전투자의 가치를 나타내기도 하며 장식한 모습을 보고 성을 구별할 수도 있다. 즉 전쟁과 교역의 책임이 있는 남자들은 일이 단순히 가정적이고 농업적인 여성들보다 훨씬 더 빛나는 장식을 한다.⁴¹⁾

하젠 산에서는 붉은 색이 밝음과 다산(多産)을 내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붉은 색을 사용하며 남성들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붉은 색을 사용한다.⁴²⁾ 또 뉴우기니아 Sabra 에서는 여인들이 남편을 애도하는 뜻으로 몸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신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문신을 새기면서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신체에 행해진 문신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말케사스섬의 문신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작품 수준이 높았으며 문신 모양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고 더욱 다양해졌다. 자연에서 얻어진 평범한 물고기, 해초, 새, 조개 등에서 반점모양, 나선모양, 창살모양, 바둑판무늬, 선 모양 등 기하학적 도형의 모양으로 변화했고 신체형태와 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부위에 따라 다양하고 적당하게 고안되어졌다. <그림19>

20세기 초까지도 말케사스섬 주민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문신을 새겨야만 했는데 남자들은 눈꺼풀, 입술, 치경(齒莖), 두개(頭蓋)에 이르기까지 몸 전체에 문신을 할 수 있었으나 여성들은 오직 팔과 등 아래쪽에 한하여 문신을 할 수 있었다. 여러 번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 시술은 성년기쯤 시작하여 30년쯤 후

40) 빅토리아 에빈, Ibid., p.5.

41) op.cit, p.62.

42) op.cit, p.58.

에야 완성되는데 점점 나이를 먹음에 따라 증가되어 완전한 형태는 소속집단 내에서 연륜과 부를 표현한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Moko라고 불리는 굉장히 복잡한 남성 문신으로 유명하는데 이 문신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나선형을 띄고 있다.

마오리인에게는 문신장식이 없음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평민임을 뜻했으며, 문신을 하지 않은 얼굴은 추한 얼굴로 간주되었고⁴³⁾ 얼굴장식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마오리 여인은 만약 입술이나 몸에 문신을 하지 않았다면 흰 치아와 붉은 입으로 인해서 개와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⁴⁾

이런 풍습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거의 사라졌으나 몇몇의 마오리 여성들은 선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입 주위에 문신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문신이 젊게 하고 피부에 주름이 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문신은 일련의 의식을 행하면서 시작했으며 그 사람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마오리족이나 말케사스 등지의 원주민들에게 있어 문신은 그들 삶의 한 부분이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띄었고 각각의 문신모양에 전형적인 이름을 가질 만큼 예술성과 자부심이 대단했다.

따라서 문신의식은 개인적으로나 부족 모두에게 매우 의의 있는 행사였으며, 문신 기술자는 부족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고 문신을 한 섬사람들은 행동할 때 몸의 샘솟는 영광을 과시했다.

남성들의 얼굴 전체에 행해진 문신은 코의 양쪽에 배치된 나선형의 커다란 주된 선과 작은 선,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이마 쪽으로 퍼져나가는 곡선과 코에서부터 턱 쪽으로 퍼져나가는 곡선으로 구성된다.⁴⁶⁾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은 원래 얼굴 전체를 곡선이나 직선, 당초문이나 와상선으로 빈틈없이 장식했다.⁴⁷⁾

43) Don Sinclair, 『Decorative Art of the New Zealand Maori』, (Reed Books, 1964), p.76.

44) 빅토리아 에빈, Ibid, p.238.

45) Op. cit, p.83.

46) W.J.Phillips, 『Maori Carving Illustrated』, (Reed Books, 1955), pp.18~19.

세계 대부분의 종족들은 바늘 빗을 사용하여 문신을 한데 반해 마오리인들은 주된 선을 만들 때에 뼈로 만든 소형의 조각칼을 카우리 소나무의 수지 등을 태워 만든 숯 혼합물에 담근 뒤 피부를 깊숙이 베는 방법을 이용했다.⁴⁸⁾

이렇게 만들어진 상처가 아문 뒤에 남는 흉터자국은 그대로 푸른빛이 도는 문신으로 된다. 주된 선 주변의 보조 문양들은 머리 빗 형태로 된 도구의 뾰족한 끝으로 가볍게 찌른 뒤 색소가 스며들게 해서 만들었으며 문신이 수염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염을 하나하나 뽑았다.⁴⁹⁾

마오리족에게 문신은 다른 예술적 표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하 세계에 대한 신비한 근원도 조각과 문신에서 비롯되었다. 마오리인들은 생명이 없는 물체라 해도 종교적인 중요성이 있다면 Moko로 장식했다.

회당이나 의식이 행해지던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 신과 조상들의 예술적인 조각품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마을을 둘러싼 울타리의 입구도 문신된 형태의 보호물 등이 세워졌다. 모든 종교의 물품 뿐 아니라 심지어 무기에조차도 나선형의 문신이 행해졌다.⁵⁰⁾ 과거 마오리인에게 있어서 무기는 일종의 보물이었으며, 전쟁터에서는 무기로 쓰이고, 개인적으로는 장문의 역할을 하였다.⁵¹⁾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정장에는 그 부속품으로서 반드시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 했으며 무기는 연설의 효과를 더하는 데에도 필수적이었다. <그림20>

통가제도의 여성들은 문신을 손에만 간단히 새기는데 그치고 있으나, 남성은 배꼽에서 넓적다리까지 다양한 무늬로 뒤덮는다.

팔라우 제도에서는 결혼한 젊은이가 치부(恥部)에 삼각형의 무늬를 시술한다.

47) 두산 대 백과 사전, Encyber

48) Terence Barrow, 『Maori Art』, p.81.

49) Don Sinclair, 『The Maori in Colour』, p.17.

50) Barrow,T, 『An Illustrated Guide to Maori Art』, (Auckland : Mathven Publications New Zealand, 1984), p.37.

51) Terence Barrow, 『Maori Wood Sculpture of New Zealand』, (Reed Books, 1969), p.90.

마셜제도의 주민들은 가슴이나 몸통 앞 부분에 예술적인 데생을 했지만, 턱과 얼굴을 장식하는 것은 추장만의 특권이며, 왕족은 팔, 일반인들은 등과 가슴에만 시술하였다.⁵²⁾

사모아 제도의 남성은 문신을 하지 않으면 남성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끝내고 나면 허리, 무릎, 하복부, 엉덩이 등에 작은 도구로 복잡한 기하학 무늬의 상처를 내고 거기에 염료를 자입 하였는데 굉장한 고통이 따를 뿐 아니라 패혈증에 걸려 죽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문신을 행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남성다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⁵³⁾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입회 의식을 위해 몸에 그림을 그리며 사냥을 떠나기 전에 보호의 방법으로 흰 진흙을 이용하여 몸에 가로로 혹은 세로로 된 기하학적 무늬를 그려 넣었다. <그림21>

오스트레일리아가 문명화되기 이전까지 진주조개는 각각에 이름이 붙여질 만큼 값진 것으로 평가되는 장신구였고 신부의 지참금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진주 표면의 광택이 좋을수록 높은 가치를 지녔으며 이 광택의 의미는 부귀를 가져다 주는 마술의 힘이라 생각하였다.⁵⁴⁾

오세아니아 인들은 그 이름처럼 축복 받은 자연 속에 장식에 사용되는 많은 재료(화려한 많은 종류의 새 깃털, 달팽이나 홍합껍질, 현란한 꽃 씨앗의 깎지, 그 외의 수많은 것들)와 특수한 식물과 황토를 이용하여 색색으로 신체에 장식을 하였고 마스크나 의식의 물건들에도 그들 자신처럼 예술적으로 칠하거나 새겨 넣었다. 그들은 색칠해진 조각물이 문화의 영웅이나 조상들의 힘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믿었으며 신체 장식(Body Decoration) 예술이 관련된 것들의 색채와 형태의 풍요로움은 그들의 상상력의 세계를 훨씬 초월한 것이었다. <그림22,23,24>

52) 두산 세계 대 백과 Encyber.

53) 이효진, Ibid, p.554.

54) 빅토리아 에빈, Ibid, p.66.



<그림 17> 뉴 헤브리스 제도
남성의 장식 상흔



<그림 18> 뉴기니아인의
Ceremonial Decoration



<그림 19> 말케사스의 문신을 담은
그림



<그림 20> 마오리 추장의 Moko
문신과 지팡이



<그림 21> 입회의식을 위해
페인팅한 오스트레일리아 소년



<그림 22> 파푸아 뉴기니아
소녀의 Ceremonial Decoration



<그림 23> 남동부 뉴기니아인의
장식 패턴과 마스크



<그림 24> 파푸아 뉴기니아인의
장식

3) 아메리카 (America)

인류의 집단 내에는 인척이나 혈연에 기인한 더 작은 집단이 있다.

이런 부족들은 결혼의 형태 또는 경제목적 그리고 특권과 금기사항을 일컬으면서 사회 구성의 한 집단을 형성하며 신체적 장식은 시각적 특성을 만든다.

북부 미국의 인디언인 ‘하이다’는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혈족은 토템으로 하나의 동물이나 자연현상, 즉 위성, 별 혹은 바람을 섬기고 있다. 특정 금기에 지배받고 있는 부족 원들은 팔과 손에 비버나 늑대, 독수리 등 그들의 토템을 새겨 넣어 다른 부족과 구별지으며 결혼은 어떤 부족과도 할 수 없다.

북아메리카 인디언 족들은 각기 엄밀하게 규정된 자기 부족의 방식에 따라 깃털로 자신의 몸을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전투공적을 보여준다. 깃털의 개수와 모양 등에 따라 그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물론 자신이 적에 의해 몇 차례 부상을 입었으며 죽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⁵⁵⁾ <그림25>

사냥이나 전쟁에서 얻은 성취를 기념하여 행하는 신체장식은 부가적인 결과이지만 개인에게는 대중의 존경을 얻어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 업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남녀에 의해 비겁자로 여겨졌으며, 불명예로서 장식하지 않은 얼굴을 했다.

북아메리카 서부 해안의 원주민들은 성대한 의식의 하나로 부(富)와 지위를 나타내고자 Potlatch⁵⁶⁾ 축제를 행했다. 이를 통해 족장과 귀족들은 그들의 위치를 사회에 확신시킬 수 있었다. 춤 의식에서 마스크는 수호 영혼을 나타내며 가문의 일원일 뿐 아니라 자신이 용감하다고 느끼게 했다.

그들은 팔에 동물 조상(고래, 곰, 까마귀 등)의 문신을 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55) 빅토리아 에빈, Ibid, p.52.

56) Potlatch 축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성행한 축제으로써 이 축제기간에 자신의 재산을 버리거나 많이 쓸수록 재산가로 여겨졌으며 더 많은 명예를 얻었다.

지위의 증거이며 사회와 의식에서의 권리와 위치를 결정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Xinguanos의 축제 중 최고는 Kwarup인데,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망자(亡者)를 추모하고 조상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젊은 세대가 성년이 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림26> 이 축제 과정에서 성인사회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의 몸을 특이한 유형에 맞추어 Painting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들은 피부 장식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굴 위의 두 쌍의 점은 뱀의 피부를, 갈색 빛의 검은 재규어 무늬는 그를 위험하고 커다란 고양이로 바꾸고, 얼굴 위에 그려진 새의 날개는 그를 미끼를 물고 가는 공중의 왕이 되게 하고, 모양 있게 그려진 물고기 지느러미는 그를 바다의 주인으로 만든다. <그림27> 이처럼 아무 보호물도 없이 색칠된 피부만을 입은 채로 그들은 악마와 동맹을 맺고 풍요를 빌며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수아족 남자들의 경우엔 컷볼에 나무로 만든 원반을 달고 연소자와 성인을 구별케 해주는 입마개를 끼운다.

외부세계와의 개인적인 관련은 신체장식을 통하여 강조한다. 테렌스 튜너는 중부 브라질의 케야포(Kayapo) 인디언들이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몸의 각 부분들을 구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붉은 색은 힘과 건강과 그리고 재빠르고 민감한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첩성과 연관지어진다. 이것은 민첩성과 기민성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감각적인 접촉이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신체부위에 색칠하게 되는데 신체말단 부분이나 얼굴 주위에 행하여진다. 검은 색은 구분이 명확한 집단 간의 변화상태와 내부사람의 통합을 의미하며 몸에 칠해진다.

가장 많이 장식되어지는 신체부위는 손, 발과 입이다. 즉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신체와 외부기관과, 신경과, 감각이 집중된 곳들이다.

문신의 풍속은 콜럼버스 이전의 중남미에도 있었으며 북아메리카에서는 알래스카 원주민 여성들 사이에서 얼굴에 봉문신(縫文身)이 행해졌다.

캐나다에서는 이로코이, 쿠리, 하이다족(族) 등이 봉문신을 하고 나스카피족은 색소를 넣는 자문신을 하는데, 평원에 사는 인디언들에게는 별로 보급되지 않았다.⁵⁷⁾ 거대한 북아메리카 대륙(현재 알래스카와 플로리다주 사이)에는 역사상 매우 다양한 문화가 출현했다.⁵⁸⁾ 그들의 각기 다른 생활 방식은 그들이 생활하는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영향을 주었고 종교적 신념과 의식에 반영되었다.

Body- Painting도 매우 다양하고 그 의미와 동기 또한 복잡했으며 'RedSkin'이라는 단어도 Body-Painting으로부터 생겨났다.

한때 미국에서는 죄수들에게 문신을 새겨 낙인으로 삼았고⁵⁹⁾, 하와이에서는 애도의 표시로 허에 문신을 하였으나 근래의 남아메리카 문신은 예술적인 민감성과 섬세한 조각 스타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아마존강 상류의 Ucayali 부족은 지금도 옥수수 농사와 사냥 그리고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페루 동부에 7,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Shipibo, Canibo, Stetebo족이 있다. 그들은 특별한 종교 의식 때 Ayahuaxca라는 환각제를 먹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그린 선을 보며 노래의 곡조를 읽는다. <그림28>

근대의 미국 문신의 이미지들은 하트, 장미, 뱀, 용, 독수리, 항해하는 배 등이며 감상적이고 애국적인 그리고 종교적 주제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그 디자인들이 미국의 남북 전쟁과 미서 전쟁 중 일어났던 특정 해전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9, 30, 31, 32>

그들은 시대적 정신에 의해, 그리고 특히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군인들과 항해인 들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하는 상징적, 형식적인 스타일을 발전 시켰다.⁶⁰⁾

57) 두산세계 대 백과 Encyber.

58) Hassrick,R.B, 『The North American Indians』, (London : Octopus, 1975), p.26.

59) 김임정, Ibid, p.30.

60) <http://www.taegutattoo.com>

4) 유럽 (Europe)

고대 유럽인들은 나름대로 정교한 화장법과 머리 장식, 화장품 사용이 보편화 되었을 만큼 미용문화가 발달해 있었다. BC 1700 ~ 1550년대의 그리스 유적으로 보여지는 벽화에서 정교한 컬(Curl)과 진주망을 이용하여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이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림33>

또 로마의 전성기에도 분장에 가까운 정도의 두껍고 진한 화장을 남녀가 모두 애용하였다⁶¹⁾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전신이 아닌 얼굴에만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의 발달과 함께 한 복식 문화의 발달이 신체 장식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고대 유럽인들에게 있어 나타나는 바디 아트의 양상은 그리 폭 넓지 못하다. 17C말 프랑스에서는 혼란하고 무분별한 메이크업이 성행하였는데 주로 주목을 끄는 것은 패취(Patch:애교점)의 사용이었다.

당시 패취는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믿었고 주근깨와 여드름을 감추고 성좌(星座)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되었으며 달, 초승달, 별, 혜성 같은 모양을 한 애교점이 인기를 끌었다.

애교점은 붙이는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랐는데 눈 근처는 ‘뇌쇄적’, 웃음으로 생기는 주름위는 ‘쾌활’, 입술 위는 ‘장난기 있음’, 이마 위는 ‘위엄 있음’, 볼 위는 ‘친절’, 입술 아래는 ‘신중’의 의미를 나타냈다.⁶²⁾

패취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늬가 있으며 탈착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날 스티커 문신과 비슷한 맥락을 형성하였다.

유럽에서의 문신은 도나우강(江)유역, 발칸반도의 주민이나 스키타이족(族)과 브리튼인(人)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61) 전선정 외 3인, 『미용미학과 미용 문화사』, (서울: 청구 문화사, 2001), p.62.

62) Op,cit, p.108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유랑자에게 강제로 문신을 새겼으며⁶³⁾, 죄인(罪人)과 노예(奴隸)들에게도 문신을 새겨 넣었는데, 1세기경 황제 칼리굴라가 문신을 한 후부터 그 풍습이 퍼져 나갔다.

또한 외투를 잠그는 수단으로 러시아에서 사용되었던 피어싱이 장식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유럽에 문신을 전파시킨 것은 콜럼버스 이후의 탐험선(探險船) 승무원들로서, 신대륙이나 남해제도의 풍습을 모방하여 행하게 되었다. 문화의 발전에 따라 문신의 풍습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다.⁶⁴⁾

영국의 작은 섬들에서 살던 이베리아 인들은 문신을 열렬히 지지했다.

골(Gaul)과 튜튼(German)족은 스코틀랜드의 픽트(Pict) 인들처럼 문신을 했고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스파이 행위에 문신을 비밀스럽게 이용하였다.

덴마크인, 고대 북유럽인, 그리고 앵글로색슨족들에 대한 영국의 침략은 더욱 더 세련되고 예술적인 문신의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그들 부족의 상징표시나 몸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들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병사들의 자존심이었고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문신 기술은 1066년 노르만의 침략이 있을 때까지 영국에 존재해 있었으나 침략 이후, 영국의 작은 섬들에서는 문신이 사라졌고, 그 후 문신의 증거는 Columbus, Cortes, Pizzaro가 미국으로부터 문신한 죄수들을 몇몇 고국으로 데려왔으며, 그들을 ‘문신한 야만인’으로 취급했다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스의 카톨릭과 정교회의 종파들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17세기와 18세기의 문신을 장려했던 것은 교회였다. 콥트⁶⁵⁾ 교회의 많은 신부들이 문신을 하게 되었으며, 전완(前腕)이나 가슴에 문신을 하게되는 종교적 무늬의 문신들은 두 세기

63) 김임정, Ibid, p.30.

64) 두산 대 백과 사전, Encyber.

65) 고대 이집트인의 자손

동안 세르비아인, 불가리아인, 그리고 카톨릭, 유라시아 인들과 함께 하나의 전통이 되어왔다.

한때 바디 아트는 하위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위 문화의 집단에는 펑크(Punk)족, 히피(Hippie)족, 힙스터(Hipsters)족, 버트(Beat)족, 테디 보이(TeddyBoy)등이 속하는데 펑크(Punk)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기분 나쁜 메이크업을 하고 귀와 코뿐만 아니라 얼굴과 신체 전반에 걸쳐 피어싱을 하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공격적인 특징이 있다. <그림34,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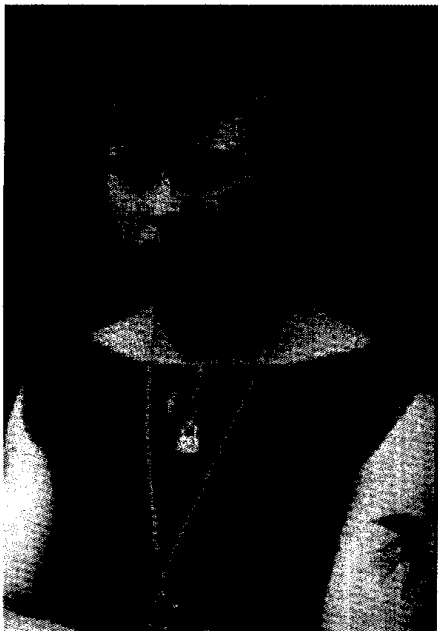
이처럼 펑크는 전위 패션으로 등장하였으나 차차 대중 패션으로 전파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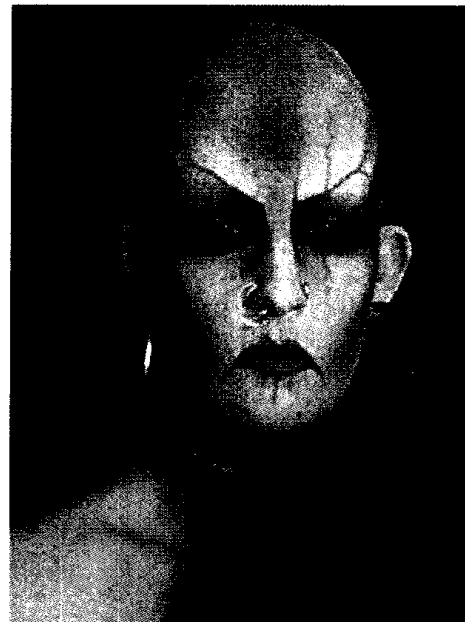
<그림 33> BC 1700 ~1550년대의
그리스 벽화



<그림 34> 펑크 스타일



<그림 35> 펑크족의 장식



<그림 36> 파괴적인 느낌의
메이크업과 피어싱

(1) 일본

일본열도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Body-painting과 문신 등이 장식과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⁶⁶⁾ 〈그림37〉 문신의 동기와 배경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해왔다.

수세기 동안의 바디 아트 문양들은 일본사회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계급의 상징물에서 그것들은 외곽사회의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열등감의 표시로 발전하였고 후에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냈지만 점차 장식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에는 문신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번성하고 있다.

일본 문신에 대한 최초 기록은 서기 27년에 편찬된 중국 왕조의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에 따르면 “일본의 모든 남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얼굴에 문신을 하고 몸에 무늬를 넣어 치장을 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⁶⁷⁾

그러나 6세기 이후 일본에서의 문신은 범죄자들과 석방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범죄자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적 표시를 얼굴이나 팔에 새겼는데 문신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에 의해 추방되었으며 모든 공동사회 생활에 참가를 할 수 없었다.

장식문신에 대한 최초기록은 17세기 말에 발행된 소설작품 속에서 발견되어지며 매춘부나 성직자 그리고 사미승들을 포함하여 주로 하급계층 사람들 사이에서 장식용 문신이 대중화되었다. 이 사실은 문신이 더 이상 형벌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아이누족 중에서 여성만이 입의 언저리나 손과 팔에 시술을 하였는데 이것은 기혼 여성의 지위의 상징이었으며, 문신을 하지 않은 여성은 남편을

66) Riechie,D and I.Buruma, 『The Japanese Tatto』, (New York and Tokyo: Weatherhill, 1980), p.42.

67) [http ://www. becgy. com](http://www.becgy.com)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림38>

오키나와 여성들도 아이누 여성들처럼 팔 안쪽이나 손등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였다.⁶⁸⁾

18세기 소설책을 위한 삽화가 많이 등장하면서 문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삽화에 그려진 그림은 대체로 무사들의 이야기나 용, 잡신, 도깨비 등이었다. 문신에 대한 수호지(水湖志)의 영향은 많은 소설 속 영웅들이 광범하게 문신을 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일본 문신의 뛰어난 예술적 특징은 몇몇의 위대한 우끼요에 예술가들에 의해 창조된 전통 디자인들에 기인한다. <그림39>

전통적인 일본의 문신은 등을 덮고 팔, 다리, 가슴에 행해지는 것들이 모두가 하나의 중심적인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문신과 다르다.

그러한 디자인은 시간, 돈, 그리고 감정적인 에너지의 모든 부분이 관련된다. 각 디자인은 용기, 충의, 헌신, 또는 은혜와 같은 주제들로 이루어지며, 이런 주제들은 개개인에 상징성을 가지고 문신이 됨으로써 문신을 한 사람 개인의 한 부분으로 만든다.

일본에서 색칠한 얼굴은 초기 시대부터 인간에 의해 장식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그들 자신에게 마술의 힘을 주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전수되고 발전해 왔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이 문화적 유산은 Kabuki 배우들의 예술적 Face-painting과 기생들의 세련된 화장에서 표현되고 있다.

Kabuki 분장의 Red와 Black 윤곽선은 영웅주의를 나타낸다. 지도자와 영웅들은 종종 그들의 손과 발에 색 줄무늬를 그린다. Blue 줄무늬는 못된 인물을 나타낸다. 하지만 다른 화장에서는 초자연적 현상과 자연의 신, 조상의 영령(英靈)을 나타낸다. 높은 지위의 기생의 얼굴은 하얀 가면 속에 묻혀있다. 여성 연기분도 남자에 의해 연기된다. Kabuki 분장은 한때 인물과 역할의 구분에 따라 50개의

68) 동아 원색 대 백과 사전, p.391.

종류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12개 정도가 있을 뿐이다.⁶⁹⁾ <그림40>

동양문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문신은 잉어, 용, 모란과 같은 토속적으로 길(吉)하다고 알려진 동물이나 꽃 등을 주로 하여 파도나 구름무늬의 배경을 문신한다. 세계적인 동양문화의 붐과 함께 서구에서도 오랜 역사로 세련되게 다듬어진 일본풍의 문신이 인기를 끌고 있다.⁷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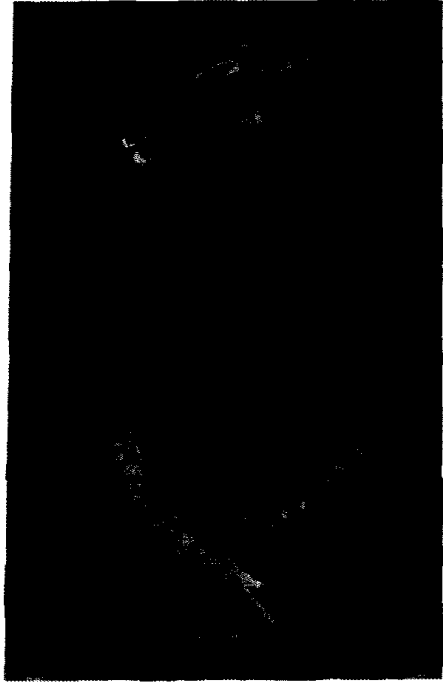
이는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일 수도 있고, 민족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발생하는 레이스리스(Raceless)의 개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69) Ka = Song, bu = Dance, ki = 예술적인 것을 의미

70) <http://www.taegutatoo.com>



<그림 37> AD250-500 년대
일본 고분 출토 인형



<그림 38> 아이누 여성의 문신



<그림 39> 구니요시를 새긴
일본 남성



<그림 40> 가부끼극의 proud
character 분장

(2) 중국(中國)

중국 상나라와 주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의 가슴에 문신을 새겨 넣어 붉게 물들임으로서 영혼이 혈액을 따라 빠져 나온다는 관념이 있었다. 시체에 문신을 새겨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러한 풍속은 이후 영생불멸을 의미하는 죽음의 상징적 의식으로 반전되었다.

망자(亡者)의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의식으로 활용되었던 문신은 태백과 중옹이 행함으로서⁷¹⁾ 산 자에게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산 자에게 행해진 문신의 의미는 살아있으며 죽은 자로 취급되었기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했던 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자자형(刺字刑)⁷²⁾은 ‘묵형’ (墨刑)이라고 칭하기도 하였고 얼굴에 글자를 새긴다는 점에서 ‘天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주나라 때뿐만이 아니라 송초(宋初), 원(元), 명(明), 청(淸)시기에도 자문형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후대로 내려가면서 형벌의 보조 수단으로 변천되었다.

범죄자들에게는 이마나 팔 부분에 문신을 새겨 넣었는데 이는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개’ 나 ‘줄무늬’ 로 문신되었다. 어느 시대에는 천시 받는 저 계급층이 문신된 계급표시에 의해 사회의 나머지 층과 구별되기도 하였는데 대부분 도살업자나 무덤 파내는 지기 또는 허드렛

71) (주나라 선조 고공단부(古公亶父)는 셋째아들인 계력(季歷)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장자 계승(長子繼承)이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이런 부왕의 뜻을 간파한 첫째아들 태백(太伯)과 둘째아들 중옹(仲雍)은 형만(荊蠻)으로 달아나 문신을 하고 단발을 하여 자신들이 왕위를 계승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太伯과 仲雍이 오(吳)와 월(越)에서 문신을 행한 뜻은 주나라의 습속에서 보면 이미 사망의식을 거행했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살아 있으며 이미 영혼을 빠져나갔음을 의미한 문신행위는 주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동생 季歷을 옹립하도록 명분을 제공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洪喜 옮김, (동문선, 1991), pp.507~508.

72) 文身, 刺字, 黥面은 몸에 문양을 새겨 넣는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刺字는 몸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이르고, 黥面은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말한다.

徐進, 『古代刑罰과 形具』, (中國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9) pp.51~58.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⁷³⁾

이처럼 중국에서는 문신을 오랑캐의 야만적인 풍습, 죄인의 체형(體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나 하이난섬(海南島)을 비롯하여 중국 남부의 주민들 사이에는 문신의 풍속이 있었다.⁷⁴⁾

범죄자의 표시로, 야만인의 풍습으로 멸시받았던 중국의 문신은 17C말경부터 지워지지 않는 맹세나 종교적 기도의 매개체로 쓰여졌다.

팔의 안쪽이나 때로는 허벅지에 행해지는 영원한 사랑의 고백의 표시가 특히 유흥가의 매춘부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불교 수도승과 헌신적인 초심가들은 달필로 그들의 등에 기도문을 새기기도 하였다. 한편 문신과 달리 Painting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존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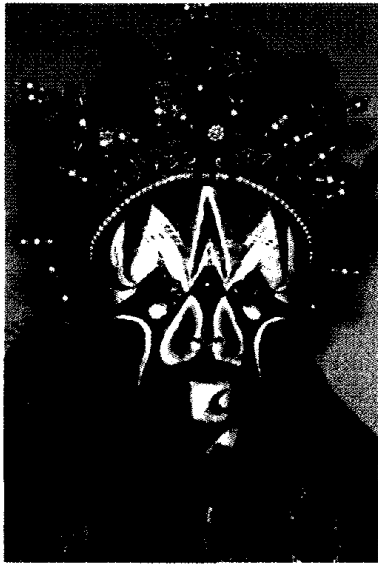
A.D 10세기경의 중국연대기에서도 'Painted face'를 특별하게 언급⁷⁵⁾한 것으로 보아 악령을 쫓기 위한 전통적인 종교의식에서 face painting을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가극에서 Painting 중 줄무늬는 배우의 특징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요즘 가극에서의 Face- painting의 다양한 스타일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 몇몇 특별한 역할은 기본적인 무늬와 색으로 전통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 예로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White tiger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왕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 캐릭터 분장이다. <그림41,42,43>

73) 박정신, Ibid, p.17.

74) 두산 대 백과사전 Encyber.

75) Karl Groning, Ibid, p.201.



<그림 41> General Guan Yu



<그림 42> White tiger



<그림 43> 경극의 다양한 캐릭터 분장

(3) 한국

우리나라에서 문신에 관해 문헌상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기록은 중국사서인 「삼국지」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서 찾을 수 있다. ‘마한의 남자들이 때때로 문신을 한다’라고 하였고, 변진인들도 ‘남녀가倭와 같이 문신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⁷⁶⁾ 「고려도경」에서는 ‘동이의 풍속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는데, 만맥잡류(蠻貊雜類)들이 이마에 문신한다.’라고 언급한 점을 보아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고려시대에 이르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범죄자를 나타내는 오욕(汚辱)의 증거로 정착되었다.

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 문화 대 백과사전』, 1991, p.405.

문신은 강호 시대에 윙성을 보였으며 덕천 길종 때는 형벌로써 다스렸고.⁷⁷⁾ 조선에서는 고려 때보다 자주 시행되었다. 여러 범죄 유형들 중 특히 절도죄를 범한 자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시행되었다.

또한 연산군 때에 이르면 도망친 노비가 증가함에 따라 도망한 공사노비를 체포하여 남자는 왼쪽 뺨에 ‘도노(盜奴)’를 여자는 오른쪽 뺨에 ‘도비(盜婢)’를 자자하도록 하였고⁷⁸⁾ 심지어 종들이 도망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낙동이씨종(駱洞李奴)’, ‘제동박씨종(劑洞朴婢)’이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하였다.⁷⁹⁾

이에 반해 풍속류(風俗類)에 속하는 문신은 사랑하는 사람사이에서도 행해졌다. 상대방의 이름을 팔뚝에 새겨 넣는 애흔(愛痕)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연정의 표시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사랑의 결속 표시로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을 연비(聯臂)라고 불렀다. 조선 成宗때 기생으로 유명했던 어우동이 그 대표격으로 그녀는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사내들 중에서 특히 좋아했던 5~6명의 이름을 팔에 새겨 넣기도 하였다. 또한 구한말 ‘대석’이라는 여인의 일화를 통해서도 이 풍속은 일반인에게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⁸⁰⁾

이 외에도 일반 여염집의 문신의 풍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18세기말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우리동방 여염의 탕자들은 결의를 할 때 서로의 팔뚝을 찢어 검은 점을 넣으며 그 푸르기는 명과 같다. 이로써 평생 잊지 않는다 하니 모두 버려야 할 악습이다.”라고 한탄하였다.⁸¹⁾ 이들은 이

77) <http://www.tattoo.com>

78) 전완길, Ibid, p.22.

79) 문형진, Ibid, p.175.

80) 구한말 한강 밖에 노량나루에 살았던 대석이라는 노처녀가 문안으로 시집왔는데, 첫날밤 옷 저고리 벗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자 이를 미심쩍게 생각한 남편이 어느날 밤 곤히 잠든 부인의 저고리를 벗기고 팔뚝을 보았더니 그곳에 연비 입묵 된 한 사나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들 통나 대석이는 시집의 門中刑으로 불지짐을 당한 후 버려졌다. 다른 남자와 사랑을 맹세하는 연비 문신을 하고 시집을 옴으로서, 시가의 명예를 더럽힌 죄의 대가였다. 이규태, 『한국인의 민속 문화3-우리 민족의 정체성』(서울: 신원 문화사, 2000), pp.202~203.

81) 문형진, Ibid, p.175.

점상 문신을 통해 정신적인 일치감과 유대감을 느꼈던 것이다.

세월이 변한 뒤에도 문신은 집단 의식과 결의의 표시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1940~1950전후 의형제를 맺기 위해 서로의 팔뚝에 먹물로써 문신을 새겼으며 1960년대 중반 월남전 때 월남 파병군인들 사이에 팔과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맹호부대는 호랑이 문신을, 청룡부대는 용 문신을, 십자성부대는 야자수 나무 문신을 했다.⁸²⁾ 그뿐만 아니라 우리조상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신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삼국지에 기록된 삼한시대의 풍습을 보면 “어부들이 물에 들어가면 용이나 물짐승으로부터 해침을 받지 않게 등에 문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문신을 하는 데 사용한 물감은 독충이 싫어하는 쪽이라는 식물에서 짜낸 액이었다.⁸³⁾ 이것이 장식 수단으로 변화하였는데 위치와 크기로 신분을 구별한다고 하였다.⁸⁴⁾ 재앙을 막는 의미로 몸에 문신을 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돌림병이 돌 때 이마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고, 평안북도에서는 난산(難産)일 때 임산부의 발바닥에 하늘 천(天)자를 써놓았다.⁸⁵⁾ 제주도에서는 갓난아이의 첫 나들이 때 이마와 콧등에 반드시 검뎅이를 발랐으며 왜란이나 호란 때에는 전쟁에 나가는 남편의 등에 아내가 울면서 문신을 새기는 풍속이 있기도 하였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시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원귀가 되어 구천을 떠도는 것을 면하여 쉽게 내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주술적 의미로도 활용되었다.⁸⁶⁾

또한 명종 때 김 수영이라는 이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몹시 슬퍼하여 하늘에 맹세하는 글 132자를 지어 자기 손으로 좌우 무릎에 刺字하였다. 이로서 자신의 효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문신이 활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⁷⁾

82) <http://www.tattoo.com>

83) 월간 지오 1988, 3월호 p.34.

84) 전완길, 『한국 화장문화사』, (서울 : 열화당), p.22.

85) 김광언, 『김광언의 민속지-한국인의 음식, 집, 놀이, 풍물』, p.296.

86) 문형진, Ibid, p.181.

87) op.cit, p.181.

(4) 인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인도에서는 신분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바디 페인팅 중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페인팅 색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한다.

눈 주위에는 유연 안료를 발랐는데 이는 ‘악마의 눈’ 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여자들은 그들이 기혼임을 알리는 붉은 염료를 머리에 염색했다. 특히 신부들이 아름답게 채색되었다. 피부는 달처럼 빛나도록 쌀 물이나 쌀가루로, 얼굴은 red나 black으로, 한쪽 발이나 손바닥은 henna로 색칠하였는데 주로 플로랄과 페이즐리 무늬로 구성되었다. <그림44> 또한 힌두교인 들은 어떤 분비물에도 더럽혀지지 않는 이마를 신체의 순수한 부분으로 여겨 붉은 점을 찍는다. 이는 축복과 장식을 겸한 표시로 시작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의미는 많이 퇴색되고, 외출할 때면 하는 미를 위한 장식의 의미만이 남았다. <그림45>

인도의 콘트족과 나가족도 성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 검은 재 또는 검정 염료를 이용해 얼굴, 발, 턱, 가슴, 어깨 등에 문신을 하였다. 벵골만 오리사(Orissa)주의 아디바스족은 당시 왕에게 행하는 처녀 공출을 막기 위해 부모들이 딸의 얼굴에 동물, 해, 달 등의 문신을 남겼다. 그것은 최고 지배자인 자연에게 딸을 먼저 바친다는 맹세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 딸을 빼앗길 위험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아디바스족은 축제처럼 초경을 치른 여자아이의 얼굴에 문신을 새겨 넣는 ‘초경제’ 를 치르고 있다.

게다가 서북부 해안 Kutch지역에서는 문신이 사(私)적인 장식과 성숙의 외적 표현으로서 전통적인 패턴이 여성들에게 사용되어지며 文身術 자체가 규수가 익혀야 할 교양과 기예 중 하나로 정해져 있다.⁸⁸⁾ <그림46> 특히 여자들 정수리에 그려진 작은 점, 백호상(白毫相)은 순결을 지켜주고 정숙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88) 전통적인 모든 패턴(점과 상징)들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장식적인 점과 상징들을 세로와 대각선으로 팔과 다리에 새긴다.

통한다.⁸⁹⁾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 사회에서는 성인에게만 사용되는 ‘titi’ 라는 문신이 있다. 이는 줄무늬 형태를 잃지 않도록 몸이 다 자랄 때까지 시작하지 않는 문신으로 그 부족의 성인 남자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문신은 매우 고통스러워서 몇 단계에 걸쳐 수년간 행해진다.⁹⁰⁾ <그림47>

인도네시아의 각 지방에서는 검은 색 이외에 여러 가지 빛깔이 쓰여지고 있으며 무늬도 다양하다. 특히 산족과 미얀마인 들은 기하학적 무늬나 와상선, 동물이나 인간의 상, 성신 등을 주로 이용하며, 서로 다른 무늬로 씨족, 부족뿐만이 아니라 사회계층까지도 구별하고 있다.⁹¹⁾

동인도네시아에서는 바바르섬이나 티모르 라우트의 무나족이 불에 태워서 만드는 상흔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⁹²⁾ 라자흐스탄에서는 턱에 세 개의 점을 문신으로 새기는데 이것은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⁹³⁾

원시적으로 토다족(族)은 어깨, 허리 및 팔에 시술하고 있으나, 삼림지대에 사는 많은 부족들은 그런 장신(裝身)의 방식을 모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삼의 여러 부족, 특히 다프라, 아보르, 미르키와 나가의 여러 종족, 미얀마 남부의 친족이나 카렌족, 그리고 타이완의 고산족, 필리핀의 북(北)루손이나 민다나오의 여러 부족들 사이에 문신의 풍습이 퍼져있다.

북아시아의 오스티아크, 길리아크, 코리야크, 추크치족 등은 얼굴이나 팔에 문신하며 중근동(中近東)에서는 아라비아의 여성들이 얼굴과 가슴, 그리고 손이나 발에다 문신을 한다.⁹⁴⁾

89) 월간 지오, Ibid, pp.28~29.

90) Karl Groning, Ibid, p.196.

91) 두산 대 백과사전, Encyber.

92) 두산 동아 백과사전 연구소 편저, 제 10권, Ibid, p.59.

93) 빅토리아 에빈, Ibid,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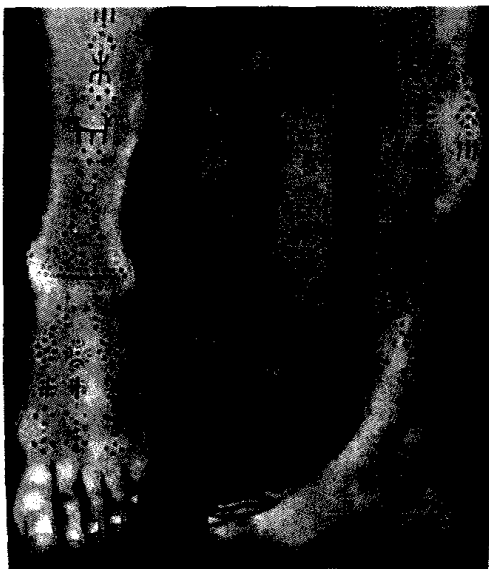
94) 두산대백과 Encyber.



<그림 44> 헤나로 장식한
라자흐스탄 신부의 손



<그림 45> 힌두교인의 이마 장식



<그림 46> Kutch 지역의 전통 문신



<그림 47> Titi 문신을 한 소녀

2. 바디 아트에 나타난 전통 문양과 색의 의미

1) 바디 아트에 나타난 전통문양의 상징성

각 민족의 Body Art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 민족의 독자적인 표식이나 문양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 환경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자기 민족의 시대적, 역사적, 종교적, 미적 생활 감정을 반영하여 그 민족의 기호성에 맞게 구성하였기 때문이며 바디 아트는 그런 의식을 반영한 상징적 행위라 할 수 있다.

북아프리카에서의 문신은 이집트에서 모로코에 이르기까지 주로 여성들간에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라비아에서 전파된 풍속으로 보인다. 아라비아에서 헤나의 디자인은 좀 더 큰 꼴의 모티프를 손이나 발의 중앙에 그려 넣었고 아프리카에서는 대담한 기하학적 형태로 그려졌다.

(1) Berber 부족의 siyala 문양

북아프리카 Berber 부족의 문신형태를 보면 피부장식에서 보여지는 주제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카펫 직물과 Sahara의 북부지방 집 벽의 장식물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림에 이용된 기본적 요소는 십자가, 점, 직선, 삼각형, 대추야자 혹은 종려가지의 양식화된 표현에 따라서 매우 간단한데⁹⁵⁾ Berber 사람들은 siyala처럼 잘 알려진 장식물이 해를 막고 다산을 증가하는 데 특히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siyala는 ‘가장 여성적’인 패턴으로 여겨져 사춘기 소녀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늬중 하나이다. 무늬의 종류 중 야자 모양은 다산의 상징으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젊은 여성과 관계가 있다. 눈은 가장 위험에 빠져있는 신체

95) Karl Groning, Ibid, p.123.

적 구멍으로 여겨서 보호 적인 장식물들로 둘러 싸여있다. Berber 여인들은 얼굴 뿐 아니라 손등에도 siyala 무늬를 이용한다. 예를 들면 손에 복잡하고 멋지게 그려지는데 그 패턴들은 결혼 전에 적용된다. 여자들은 해나 물감을 사용하고 그것이 모든 면에서 강력한 보호를 해 준다고 믿는다. 뿐만 아니라 발자국에 남겨져 있는 영혼에 주술적 행위를 하는 데에도 전통적인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적의 힘을 방해한다고 믿어 맨 발과 발뒤꿈치에 siyala 무늬를 필요로 한다. <그림48,49>

(2) 마오리족의 Moko

마오리족의 문신은 나선형, 곡선, 소용돌이모양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Moko 문양이다. 마오리족 사람들은 소용돌이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용돌이는 불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죽은 뒤에 혼은 몸에서 분리되어 마귀할멈과 만나게 되는데 마귀는 소용돌이 문신이 새겨져 있던 몸에서 온 혼에게는 ‘생명의 땅으로 가라’는 주문으로 혼의 눈을 뜨게 하여 불사의 땅으로 편히 가게 하지만, 만일 소용돌이 문신이 없으면 혼의 눈알을 파먹어 장님이 되어 불사의 땅을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오리족은 소용돌이 문신을 얼굴, 어깨, 엉덩이 등에 새긴다. 이런 것으로 소용돌이는 불사를 나타내는 무늬로 현대에까지 그 의미가 이어져 왔다.⁹⁶⁾ <그림50>

(3) 기하 문양

이집트, 아프리카, 인디언들은 자신들과 자연과의 분리를 인정하면서 제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물을 상징, 악화시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animism 세계관을 기하문양으로 표현해냈다. 그들의 animism적 세계관은 면, 직선, 삼각형 등의 기본적 기하학적 도형들로 변형이 되었다.

96) 문국진, “문신을 통해 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녹십자의보, 제28권 제6호, 2000), p.390

수평선과 수직선의 선적인 기호는 대립되는 운동감을 가진 선들로, 수평선은 평탄함과 고요한 팽창의 운동성을 의미하며 수직선은 상승과 하강 등의 강한 운동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만나는 십자, 대각선, 삼각형의 기호는 조화, 양과 음의 합일을 상징하며 우주의 기본 생성 원리를 뜻한다.

원형은 인간이 공유하는 바탕이 되는 관념, 근본적인 관념으로 우주관을 의미한다. 곧 신화의 모체이다. 근원 그 자체는 이름도 없고, 논리도 없고,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며, 여러 개의 原形들 중 유일한 原形이다. 원은 시작도 끝도 없음으로 해서 영원과 전체성의 사상을 의미한다.⁹⁷⁾ 원은 전통적인 태양의 이미지로 반원의 모습일 경우 달의 구조로도 사용되며, 환생, 생성, 순환의 반복을 의미한다. <그림51> ⁹⁸⁾

(4) 나비

나비는 영원한 생명, 재생, 부활을 상징하며 그리스에서는 사랑에 사로잡힌 마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은밀한 부분에 새겨지면서 더욱 극적인 에로틱한 아름다움의 효과를 가져오는 장식 표현이다. 나비는 지상에 사는 애벌레에서 용화 단계를 거쳐 하늘에 사는 날개 달린 나비로 변신하므로 재생, 부활, 영원함을 상징하며 동양에서는 가끔 요염한 여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나비는 색상과 무늬가 화려해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기쁨과 여름을 상징하기도 하여 부부의 금슬이 좋음을 상징하였다.⁹⁹⁾ <그림52>

(5) 장미

장미는 아주 복잡한 상징이며 모순된 의미를 가져서 천상적인 안정성과 지상

97) 조르쥬 나타프, 『상징, 기호, 표지』, 김정란 역, (서울 : 열화당, 1987), p.80

98) 이마의 원은 보름달을 상징하며 반원은 반달을, 중앙에서 원과 점은 태양을 상징한다.

99) 임영주, 『한국 전통문양 자료집』, (서울: 미진사, 1996) p.35.

적 정념을 나타낸다. 장미는 시간, 영원, 생명과 죽음, 풍요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완전함과 관능적인 유혹을 상징한다. 또한 침묵, 비밀, 신중하게 숙고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장미는 여신들의 꽃으로서 사랑과 생명, 창조, 아름다움, 처녀성을 상징한다. 특히 붉은 장미는 욕망, 정념, 기쁨, 미, 관능미, 성취 등의 의미를 담고 있고 황금장미는 안정성을 푸른 장미는 손에 넣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의미한다.¹⁰⁰⁾ 〈그림53,54〉

(6) 새, 날개

영적 생명과 망아적(妄我的) 체험에 관련된 모든 상징체계는 새와 그 날개의 이미지에 주력하고 있다. 신의 세상으로 날아오르려는 인간의 ‘비행’의 이미지는 초월, 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승의 속박으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키고 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날개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상징한다. 날개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중동에서는 신을 상징하기도 하며 신성(神性)과 영성(靈性)을 나타낸다. 또한 신의 자유로운 움직임, 두루 퍼지는 힘, 속세를 초월하는 힘, 자발적인 운동, 사고의 비상, 의지작용, 정령의 신, 자유, 승리, 신속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날개는 신속하게 하늘을 날아가는 신의 부수물(附隨物)이며, 신들과 인간사이의 의사소통의 힘을 상징한다. 펼쳐진 날개는 신의 가호를 상징하고, 불교에서 두 장의 날개는 신의 가호를 상징하고, 샤머니즘에서 날개 달린 말은 혼을 인도하는 자이다. 그리고 날개 달린 말은 태양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⁰¹⁾ 〈그림55,56〉

(7) 인물

영웅은 용기, 지식, 능력을 의미하며, 인간의 미성숙 상태를 벗어나 자기 책임

100) J . C Cooper, Ibid, pp.294~295.

101) J . C Cooper, Ibid, pp.454~455.

과 자기 확신에서 영위되는 죽음을 경험하고 보다 풍부하고 성숙한 인간 조건을 가진 인간의 영적인 삶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서 존재함을 상징한다. <그림57>

또한 삶을 상징하는 모티브중 하나이다.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여신은 순수, 순결의 의미를 지닌다. <그림58>

(8) 해골

해골문양은 중세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양으로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파푸아 뉴기니아의 전사에게서 볼 수 있는 해골문양은 단순한 해골이 아니라 많은 부족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체를 넘어 그 속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¹⁰²⁾

해골은 꺼져 가는 생명, 인생의 무상함, 공허함 등을 의미한다. 특히 십자가로 교차된 대퇴골과 해골을 한 상으로 그린 그림은 죽음을 나타내는데 대퇴골은 생명력 특히 허리에 머무는 생식력을 상징한다.¹⁰³⁾ 그러나 단순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은 같은 선상에 있음을 의미하며 죽음을 초월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59>

(9) 호랑이

벽사진경(辟邪進慶)을 상징하고 태평성대를 예측하는 길상의 징조로 여겨왔던 호랑이는 용맹의 상징이며 신령함과 권력자의 상징이기도 하다.

명물로 여겨졌던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모두 즐겨 사용하는 예술적 모티브(motif)가 되었는데 전통적인 한국 호랑이는 위엄이 있고 무서우면서 어딘가 친근감이 가고 편안하고 잘생긴 시골 할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때로는 어수룩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용맹스러움과 해학적인 양면을 동시에

102) Rufus C. Camphauseu, ibid, p.53.

103) 김임정, Ibid, p.52.

느낄 수 있는 표정이 한국 호랑이다. <그림60> 민화에 등장되는 호랑이는 멋없는 중국 호랑이나 공격적인 일본 호랑이와는 엄연히 다른 성품을 지닌 호랑이로, 호랑이를 통해서도 다른 세 나라의 민족성을 엿볼 수 있다.

일제시대부터 한국 호랑이는 무섭고 사나운 항상 도전적인 자세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놓고 금새 집어삼킬 자세인 일본식 호랑이로 변질되었다.

호랑이는 참호랑이인 줄무늬와 개호랑이로 알려진 점박이 무늬인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신격화된 호랑이는 반드시 줄무늬로 나타나며 현대의 바디 아트에서도 줄무늬 호랑이의 모습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명물로 인식되기도 했던 호랑이는¹⁰⁴⁾ 인간에게 보여준 포악성과 용맹성을 빌어 잡귀를 물리치기를 바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매우 활동적이고 힘차게 표현하고 있다.¹⁰⁵⁾ <그림61>

(10) 도깨비

도깨비는 사람이 쓰던 물건에 정령(精靈)이 붙어 조화를 부린 물체 그 자체의 변형으로 귀신과는 달리 조상신처럼 모시거나 제의를 갖추어 주는 대상도 아니요 사람이 꺼리며 무서워하기만 하는 공포의 대상도 아니다.¹⁰⁶⁾ 현재 바디 아트에서는 여러 장식 미술과 벽화 미술을 통해 전해져온 도깨비 형상을 통해 일반 도깨비상의 기본모습이 드러나고 있다.¹⁰⁷⁾ <그림62,63>

도깨비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특성 때문에 신체에 도깨비문양을 새김으로서 여성에게는 몸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을

104) 허 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서울: 동아 출판사, 1991), p.31.

105) 『한국 전통 문양집 12권』, 안 그래픽스, p.96.

106) 『한국 전통 문양집 3권』, 안 그래픽스, p.10.

107) 키가 8~9 척이 넘고 무서운 털이 나있고 몸은 흑적색이고 눈은 무섭게 크고 입에는 날카로운 영치가 네 개 밖으로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세 가락이고, 머리에는 쇠불이 달린 것도 있고 뿔이 없는 수도 있다.

남성에게는 초인적인 힘과 통찰력을 지녔음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쓰여진다.

(11) 용

용은 동서양이 각기 다른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동양의 용은 힘과 선의 수호신이며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지만 서양에서는 지하에 속하는 파괴적인 악으로 여겨진다.¹⁰⁸⁾ 극동에서는 초자연적인 힘, 지혜, 강함, 숨겨진 지식, 생명을 부여하는 강이나 바다의 힘을 상징한다. 용은 천자로서 황제의 표시이며, 또 그를 추종하는 고귀한 현자의 표기도 된다.¹⁰⁹⁾

용의 머리는 소, 몸뚱이는 물고기(뱀), 그리고 발은 독수리의 것이다. 소는 육지의 동물이고, 물고기는 물, 독수리는 하늘의 동물이다. 따라서 용은 天, 地, 人을 함께 가진 이른바 삼위일체의 전능적인 전천후 동물인 것이다.¹¹⁰⁾ 만물 조화의 능력을 갖춘 신비의 상징이자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진 용은 인간의 끝없는 욕구가 만들어 낸 것으로, 이러한 용의 무한한 능력에 의탁하여 그들의 욕구와 정서를 대입시키고 용의 힘을 빌어 성취하고자 하였던 인간의 욕망, 기원, 정서가 숨어있다.¹¹¹⁾ 〈그림63,64〉

용에게 언제나 붙어 다니는 둥글고 빨간 여의주(如意珠)는, 태양, 달, 천둥소리의 상징이다. 자연이 지닌 두 개의 원리에 의한 힘을 상징하는 알인데,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힘을 잃는 전조로 여겨졌다.¹¹²⁾

용이 비록 상상의 동물이기는 하지만 긴 세월을 통하여 인간에 의해 엄연한 도상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었고, 현대의 바디 아트 속에 나타난 용의 모습 또한 권위와 강력한 힘을 바라는 인간의 욕구와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다.

108) 임영주, Ibid, p.27.

109) J . C Cooper, 『세계문화 상징사전』, 이윤기 역 (서울 : 까치, 1991), p.110.

110) 유창호, “한국 전통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111) 허 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서울: 동아출판사, 1991), pp.13~15.

112) 임영주, Ibid, p.28.

2) 색이 의미하는 다양성

바디 아트에 있어 무늬와 색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각각의 무늬와 색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본능적 심리를 반영하여 표현적 언어로 계승하여 왔다.

특히 문화적 교류가 드물고 독자적 집단을 형성하여 생존해 나가는 민족에게 있어 그 개념은 매우 특수하거나 독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색과 독특한 무늬를 통해 나이와 신분을 상징하거나 주술적 의미를 담아내기도 한다.

red는 여러 지역에서 피를 상징하거나 의학적인 효능과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삶과 기쁨의 색이 되고 어떤 곳에선 죽음과 슬픔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콜롬비아에서는 남녀 모두 종교의식을 행할 때 붉은 색으로 몸을 치장하고 아프리카 중부 Zaire의 Yaka족은 할례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뉴기니아의 하젠산에서는 붉은 색이 밝음과 다산을 내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붉은 색을 사용한다. 반면 흰색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색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사냥을 나가기 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온 몸에 흰 칠을 하였고 아산트 족 역시 온 몸에 흰 진흙으로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서 신비스러운 보호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아프리카인 들은 흰색이 신성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과 눈에 흰 진흙을 이겨 바름으로서 악령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믿었다. 때때로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은 성인식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며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Xhosa족은 온몸에 흰색으로 덧칠을 하는데 이는 성인식 동안 사회적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색과 주술적 상징들은 종교적 에로티시즘으로 또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을 자연 계도에 묶어서 그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인도의 여인들은 신분이나 종교적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로 그녀의 머

리를 물들이기도 했다. 하나의 컬러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빨강은 불을, 오렌지는 떠오르는 태양을 황토색은 피를 분홍은 지구를 상징한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기 위해 밝은 빨강으로 몸을 들이고 신부에게는 흰색과 빨강을 물들였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눈 주위에 흑색물감을 놓음으로써 그들을 악한 기운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고 종교적인 믿음이 강한 여성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마를 붉게 물들이기도 했다.

또한 고대인들은 색이 특별한 숫자나 음조, 분위기, 위성, 천체를 다스리는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남미에서 신을 묘사하는 방법은 종교적 사고의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 남미 원주민들이 사용한 색들은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개념에서 나온다. 북부의 Aztec 신인 Tezcatipoca는 검은 색이며 동부는 붉은 색, 남부는 푸른색, 서부는 흰색으로 표현하였다.¹¹³⁾

인도에서는 많은 신들이 파란(blue) 피부를 하고 있는데 이는 blue가 영적이며 성적인 상징적 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상이나 의식을 위한 주술적인 부분에 있어 신의 모습은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호의 신 Vishnu는 대개 blue로 그려지지만 사람을 마술에 빠지게 하거나 명상에 잠기게 할 때는 white 피부의 Vishnu로, 누군가를 굴복시키고자 할 때는 red로 표현된다. 그 외에도 각 집단 간에 가지는 색의 의미가 매우 다른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림66,67>

북아메리카의 여러 부족 중에 cherokee 부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 red는 성공과 승리의 상징인 전쟁을 표현하는 색이고 blue는 패배와 고난의 상징이며 black은 죽음, white는 평화와 행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집단에게는 정 반대로 white가 죽음과 슬픔의 표시이며 black은 기쁨의 상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어떤 부족에 있어서는 행복의 색이 다른 부족에서는 불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113) Karl Groning, Ibid, pp.26~27.

악령을 쫓기 위해 행해지는 중국의 전통적 종교의식에서 표현되어지는 페이스 페인팅의 경우만 해도 red는 용기와 충성, 성실을 의미하며 blue는 잔인성을 yellow는 과묵함을 악마와 귀신은 green 얼굴로 나타낸다.

또한 white color로 표현된 tiger는 아주 사납고 무서운 왕을 표현하고 있다.

Nuba 집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나이 집단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젊은 남자들이 그의 연령에 맞지 않는 색을 사용하게 되면 연장자들에 의해 벌을 받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 시켜왔는데 각 민족은 색의 사용에 관한 집단 규율과 전통적 관습을 통해 그 색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그 나름대로 고수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림 48> Berber족 신부의 siyala 장식



<그림 49> Siyala 무늬로 장식된 발



<그림 50> 마오리 추장의 색소 문신



<그림 51> gond 여성의 전통 문신



<그림 52> 나비 문신



<그림 53> 붉은 장미 문신



<그림 54> 푸른 장미 문신



<그림 55> 새



<그림 56> 날개 문신



<그림 57> 영웅 문신



<그림 58> 나체의 여신



<그림 59> 해골



<그림 60> 한국적인 느낌의 호랑이 문신



<그림 61> 용맹스러운 모습의 호랑이 문신



<그림 62> 전통적인 모습의 도깨비 문신



<그림 63> 사이버적인 느낌의 도깨비 문신



<그림 64> 등에 새겨진 용 문신



<그림 65> 용 문신을 새긴
남과 여



<그림 66> Red Vishnu



<그림 67> Blue Vishnu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디 아트의 형태와 특성

20C 후반 예술의 한 분야인 body art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20C 후반을 지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주체의 소멸’에 따른 ‘다원성의 부활’로 나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양식이 서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어떤 하나의 스타일과 장식방법, 의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향과 의미를 지닌 것들이 하나가 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따른 에스닉적인 경향을 들 수 있으며 정상적인 형식을 파괴하는 해체주의 성향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험정신이 강하며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선호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매 시즌마다 패션의 경향은 복식의 스타일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업 스타일이나 액세서리, 그 외 신체 장식물 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바디 아트 나름대로 독자적인 경향과 흐름을 주도해 나가기도 한다.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바디 아트는 원시로의 회귀 또는 원시주의 추구, 해체주의 성향과 일시성의 추구가 많이 나타나며 혼성모방¹¹⁴⁾과 레트로(retro)¹¹⁵⁾형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1) 원시주의 추구(에스닉)

물질 문명의 발달로 야기된 인간성 소외의 모순 속에서 현대인들은 상실된 인간

114) 혼성 모방은 아무런 원칙 없이 과거의 모든 스타일을 조립하고 결합함으로써 ‘이질적인 것들의 혼합으로 인한 의미의 초월’이라 할 수 있다. 패러디(parody)를 기존의 작품들에 대한 유머러스한 모방, 숨은 동기가 있는 풍자적인 모방이라고 정의한다면 혼성 모방은 어떠한 동기도 감각도 없는 중성적인 패러디라 할 수 있다.

115) 단순한 모방이 아닌 과거의 스타일을 이용하여 역사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의미 창출이 배제된 혼성 모방의 개념과는 구분된다.

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원시에의 향수와 자연으로의 회귀를 동경하게 되었다.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램은 원시적인 야수성과 토속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켜 순수한 감정 표출과 강렬한 표현, 원시의 사상과 생명력이 나타난 시간과 문명을 뛰어넘는 원시적 성향을 보이는 스타일로의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원시인들은 자신들 사회의 미의 기준에 따라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 신체를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림68〉는 파당 여성이 기린과 같이 긴 목을 만들기 위해 링을 끼우고 있는 모습이다. 파당 소녀들은 약 5세부터 1/3인치의 낫쇠로 된 링을 감싸며 여성이 간통을 했을 때는 링을 제거한다. 긴 목을 지탱할 수 없어 질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인내력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이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참아낸다.

〈그림69〉는 파당족과 아프리카 여성들의 영구적 변형을 통한 금속 고리 장식을 현대 패션에 옮겨옴으로서 서구 중심사회에서 영구적 신체 변형을 신체 불구라 생각하는 기존의 관념을 무시하고 새로운 미를 제시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 보면 남성과 여성은 다같이 머리털을 자르고 다듬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냈다. 머리카락은 장식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한 머리카락은 흔히 자기 표현, 사회적 동일시, 권력, 종교적 의식을 위해 사용해왔다. 많은 문화에서 헤어스타일은 역할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역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70〉은 폴리네시아 남성들의 머리 모양을 나타낸 듀프리의 삽화로 원주민들의 장식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림71〉은 서구 중심의 사회관점에서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되어 왔던 소수민족의 머리 장식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곱슬곱슬한 머리를 빗어 세워 묶은 뒤 부풀려 둥글게 다듬어 표현함으로써 아프리카 토착민의 아프로(afro)스타일과 흡사하게 여겨지며 현대 복식과 잘 어우러져 새로운 패션으로 선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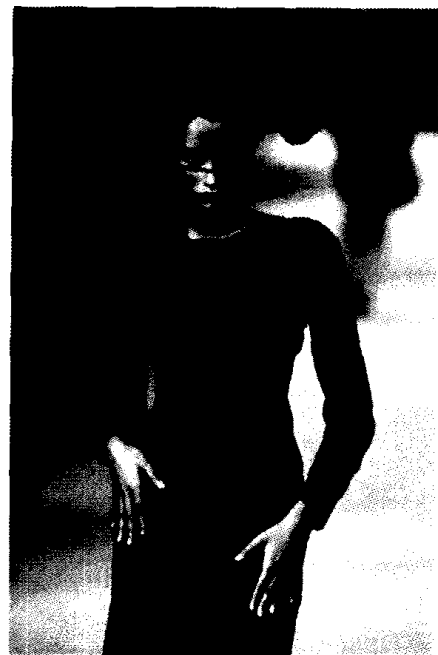
<그림 68> 파당족 소녀의 목장식



<그림 69> 아프리카인의 목장식을 모방
Alexander McQueen '1997' F/W



<그림 70> 폴리네시아인의 헤어스타일



<그림 71> 폴리네시아인의 머리장식
인용 John Galliano '1996' F/W

2) 에로티시즘적 표현

인류는 신체변형이나 장식을 통해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고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출하거나 성적 매력을 발산하기도 하였다.

레버(Laver)는 신체의 특정부위를 은폐, 노출, 강조를 통해 성적 매력을 증대시키는 성감대 전이이론을 주장하였으며¹¹⁶⁾ 발레리 스틸(Valerie Steele)은 원시인들의 바디 페인팅, 문신, 장신구 등의 사용이 신체를 장식함으로써 보는 이의 시선을 성적 매력에 집중시키게 하는 수단이라 하였다.

특히 문신은 노출된 피부에 직접 행해지는 신체 장식의 하나이면서 신체가 노출될 때 비로소 시각적으로 확인 될 수 있고 성적 매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여성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장식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에로티시즘적 표현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원주민들이 페니스 케이스를 착용하는 모습들은 성기 부위를 가림으로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체 장식설 중 착용동기의 상반된 양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의복으로 수치스런 몸을 가려 정숙성을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오히려 은폐된 인체부위에 더욱 매력과 관심을 끌며 에로티시즘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고 또한 성적인 자아로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지만 더욱 무의식적으로 성적인 속성이 복식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림72〉는 원시인들의 페니스 케이스 장식을 모방하여 표현한 것으로 신체의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에 의해 성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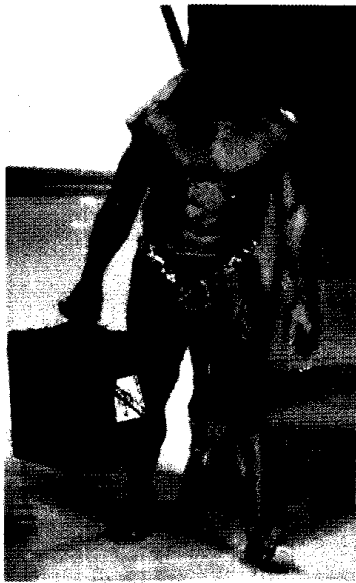
또한 대퇴부와 관절의 무늬들은 케야포 인디언들의 문신을, 얼굴을 덮고 있는 천은 마오리족의 문신을 연상케 한다. 반지와 유두 피어싱 까지 같이 장식하고 있는 모습은 아무런 의미와 원칙 없이 여러 가지 장식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혼성 모방의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그림73〉은 겉옷에 성기의 형태 그대로 입체감 있게 드러내 놓음으로서 페티시즘¹¹⁷⁾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다.

116) F. Davis, Ibid, p.83.

117) 페티시즘이란 용어의 정의는 언어와 학문 분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의미론적으로

〈그림74〉의 의복의 형태는 본디지 패션(bondage fashion)¹¹⁸⁾에 가까우면서도 소재는 고무와도 같이 부드러운 느낌이며 인체의 선을 그대로 살려 표현하고 있다. 게다가 아프리카 인들이 사회적 의식을 위해 하얗게 칠했던 것처럼 표현된 의복의 색은 피부에 페인팅을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색깔과 프린팅이 선명하고 실제적이며 화려하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무늬와 요소들의 결합은 단순한 혼성 모방이 아닌 새로운 의미와 형태의 창작으로 태어나고 있다.

〈그림75〉는 욕망, 관능적인 유혹들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를 은밀한 곳에 새겨 넣음으로서 장식된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극하여 더욱 에로틱한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성기와 유두를 뚫어 피어싱을 하거나 가슴이나 등, 은밀한 부분에 문신을 함으로써 극도의 에로틱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74,75〉



〈그림 72〉 혼성 모방을 통한 장식
Seredin Vassiliev 2001 S/S



〈그림 73〉 페티시즘적 장식
Seredin Vassiliev 2001 S/S

각각 다르다. 보편적으로 페티시즘은 크게 주물 숭배와 성적 도착 현상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페티시즘에 대한 성적 형태는 에로틱하고 초자연적인 지배가 행해지는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힘에 대한 원시적 연상들을 사용한다.

118) 신체를 속박하는 콜셋, 체인, 가터벨트 등의 성을 주제로 한 의류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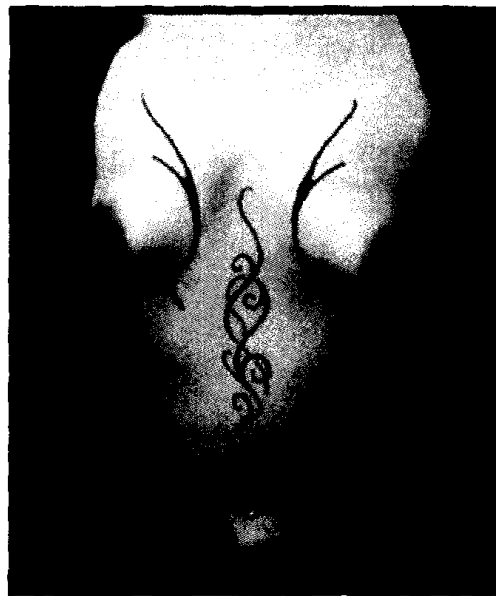
<그림 74> 의상을 통한 바디 페인팅
효과 Seredin Vassiliev 2001 S/S



<그림 75> 나비와 장미



<그림 76> 배꼽과 성기 피어싱



<그림 77> 유두 피어싱과 문신

3) 해체주의 성향 (하위 문화적 표현)

20C 후반에 들어서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신체 표현의 무제한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이상 미에 따른 획일화보다는 탈 중심적인 개성 중시와 비상식적인 신체개념인 그로테스크(Grotesque)¹¹⁹⁾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위문화란 주류문화로부터 주변화된 것,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 당한 것, 동시대의 지배적 문화 형태와는 다른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로 폭넓게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하위문화는 한편으로는 내부의 능동적인 요인으로 인해 주류 문화를 거부 한 것이며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를 배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위문화의 주체 형태는 계급론적으로는 노동자/로펜의 프롤레타리아의 위치를, 세대론 적으로는 부모들의 기성문화에 반대되는 청년문화의 위치를, 성애론적으로는 이성애에 반대되는 동성애의 위치를, 인종적으로 백인 정체성에 반대되는 유색 정체성의 위치 속에서 형성된다.

즉 하위문화라는 것은 기성세대의 문화에 반발하고, 주류 문화에 반발하는 자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¹²⁰⁾

이처럼 하위문화에 속해있는 집단은 주로 특징적인 의상 또는 Body Art를 통하여 현대사회의 사상, 예술의 혼돈,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반감, 퇴폐주의, 허무주의, 도피적 이상주의를 표현하였다.

하위문화에 속한 집단을 살펴보면 히피(Hippie), 스킨헤드(Skin head), 힙스터(Hipsters)족, 버트(Beat)족, 테디 보이(TeddyBoy), 펑크(Punk)족 등이 있다.

이들이 표현하는 Body Art의 특징은 외관상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나타내며

119) 그로테스크는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결합,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과장과 극단, 피상하고 역겨운 것, 혐오스럽고 불쾌한 것 등을 특징으로 하며,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반(反)개념으로 부정적인 것으로서 아름다운 것의 표현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여, 희극적인 것, 무시무시한 것, 추한 것 등이 갖는 무한한 다양성을 강조한다.

120) Dick Hebdige,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이동현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8), p.8.

퇴폐적이고 가학적인 면을 표출한다. 아주 창백하고 밝게 표현된 피부에 검은색 눈썹을 날카롭게 그리고 검은색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웅덩이모양으로 선을 두르며 입술과 손톱에까지 검은색을 바른다.¹²¹⁾

헤어스타일은 수탉의 벼슬 모양인 모히칸족의 헤어스타일과 비비꼬아 폭발하는 듯한 모양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스파이크헤어로 장식하여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78>

또한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낸 뒤 두피나 어깨 등 노출이 많은 곳에 전면적인 문신을 하거나 눈썹, 이마, 코, 혀에 이르기까지 신체의 예민한 부위에 한 곳에 여러 개의 피어싱을 하기도 한다. <그림79>

이는 그들에게 사회적 집단의 소속감을 표시 해주며 특히 색다른 컬러의 바디페인팅, 색다른 디자인, 색다른 장식들은 청소년 하위 문화를 형성하는 트라이벌 그룹(Tribal Group)의 멤버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시켜 주기도 한다.¹²²⁾



<그림 78> 펑크족의 패션과 장식



<그림 79> 문신과 피어싱

121) 이은임,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0), p.25.

122) Ted polhemus, 『Streer style』,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4), p.13.

4) 일시성의 추구

현대 사회는 유행주기의 빠른 변화, 개성미의 추구, 간편성 등을 이유로 영구적 장식 방법보다는 교체가 용이하고 이용이 간편한 장식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림80〉은 의복 소재에 마오리 족의 Moko 문양과 같은 무늬를 프린팅 해 넣음으로써 피부에 직접적인 문신을 새겨 넣지 않고서도 입체감과 유동성을 느끼게 한다. 즉, 타투 룩(Tattoo Look)을 통하여 전통적 문양의 예술성과 표현성은 살리되 문신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81〉는 Tattoo Seal을 붙임으로써 시선이 가슴으로 향하게 하여 에로틱한 정서를 자아내고 있다. 스티커 문신은 크리스탈 타투와 함께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일시성의 추구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북서부 해안의 인디언들과 뉴헤브라이즈(New Hebrides)의 메일쿨라(Malekula)에서는 높고 납작한 이마를 가지기 위해 두개골이 단단하지 않은 출생 후부터 두개골을 변형시켜왔다.¹²³⁾ 이러한 관습은 두통과 귀먹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따르는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미의 기준에 따라 두개골을 변형시켰다.

현대사회에서는 영구적인 신체변형을 통한 장식은 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림 82〉와 같이 가발이나 back comb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두개골의 신장과 같은 효과를 표현해 내고 있다.

〈그림83〉의 헤나 문신은 이용이 간편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장점으로 일반인들에게 많이 사랑 받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인들의 일시적인 장식 방법의 선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123) 빅토리아 에빈, Ibid, p.34.



<그림 80> 타투룩을 통한 문신 효과
Jean Paul Gaultier '1996' S/S



<그림 81> 장미 문신의 에로틱한 이미지
Romeo Gigli '1996' S/S



<그림 82> 가발을 이용한 일시적
두개골 신장 Givenchy '1997' F/W



<그림 83> 헤나 문신된 손

4. 바디아트의 예술적 가치

마오리 문신과 카더베오 얼굴 화장에 대한 비교에서 레비 스트라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각각의 경우에서 얼굴의 생태적 특징은 문신과 화장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즉 문신과 화장은 곧 얼굴이며 혹은, 얼굴을 창조한다. 문신과 화장은 사회적 존재, 인격의 고귀성, 정신적인 중요성을 얼굴에 주었다”¹²⁴⁾ 이 말은 문신과 화장을 모두 포함하는 바디 아트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바디 아트는 원시시대의 주술적인 신앙과 본능적인 욕구로부터 시작되어 이어져온 신체 예술의 한 형태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시각 예술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양식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전통적인 바디 아트의 방법론에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며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적 욕구의 충족, 자아 의식의 발산, 신 표현주의적 의식의 발로, 또한 단순한 시각적 예술에서 실험성이 강한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개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바디 아트는 다른 예술에 비하여 많은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 예술은 작가의 작품 의도만이 표현되어지나 바디 아트는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와 작품성만이 아니라 시술을 받는 이의 표현의도와 협조, 시술 후 시각적 표현성이 어우러져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바디 페인팅의 경우에는 화폭에 담겨지는 그림이나 조각물과는 달리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여러 가지 무대장치(조명, 음향, 특수효과-물방울, 스모그, 음악 등)와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창작성과 작품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디 페인팅의 경우 조각이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과 비교했을 때 일회적 표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오히려 독자성과 회귀성은 더욱

124) 빅토리아 에빈, Ibid, p.93.

높아진다 할 수 있겠으며 모델의 다양한 동작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진이나 카메라, 영상 기기의 기록을 통한 평면, 영상 예술로서의 재 탄생으로 오랫동안 살아있는 감동을 줄 수 있다.

바디 페인팅에 도입된 초현실주의 회화와 이념은 창조적이면서 혁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뚜렷한 개성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다양한 오브제¹²⁵⁾의 사용과 시도는 기존의 환경에 대한 신선함과 가능성을 던져주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일반인들에게 바디 아트로서의 Body Painting이 독자적인 조형예술로서 인식하게 되는 새로운 가치관의 성립을 가져다 주었다.

신체에 직접 새겨지는 문신은 원 작품 그대로의 보존성이 낮은 바디 페인팅의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보존성이 높는데 반영구적 문신은 3~5년, 진피층 내에까지 물감을 새겨 넣는 영구적 문신은 작품을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은 생생하게 표현되어지고 보존된다. 문신에 사용되는 물감의 색은 시술 후 개개인 피부의 특성상 약간씩 다른 색을 띄게 되므로 같은 색과 무늬를 사용한다해도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된다.

문신에 사용되는 물감은 천연재료를 이용하되 독성은 제거되어 피부에 무해하며 해나 문신의 발전과 확대, 스티커, 크리스탈, 반영구적 문신의 개발 등은 영구적 문신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던 이들에게 호응을 얻게 됨으로서 바디 아트의 일반화와 대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바디 아트가 더 이상 하위문화의 잔유물이 아닌 패션예술의 한 분야로서 당당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 미술과 철학에서는 몸을 새로운 화두로 또한 미학적 기준으로 자리잡아

125) 오브제란, 미술표현의 모든 대상을 뜻하는 말로 특히 작가의 정신 자유를 중시하는 전위예술이 새로이 미술의 소재로 쓰기 시작한 작은 돌, 나뭇조각, 쇠부스러기 따위의 물체를 가리킨다.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1991.

가고 있다.¹²⁶⁾ 미술과 분장분야가 서로 상대적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을 띄고 있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객관성과 주관성이 한데 통합되어 있는 상호주관성의 기반인 몸에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이러한 몸을 그대로 이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Body Art는 미학적, 철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

바디아트와 바디아트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실제생활과 마음속의 세계사이에 상호 관련되어 초현실주의적 은유의 중심을 차지하며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에 나타나는 Body Art는 고대 바디 아트 기원 중 주술적인 의미만이 배제된 형태로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독창적 표현을 위한 신체 예술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패션에서 신 트렌드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패션쇼무대는 물론이고 월드컵이나 올림픽, 국제 비엔날레 같은 국제적 대회와 예술행사, 조명,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곁들여 표현하게 되는 무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예술적 문화의 한 장르가 되었고 더욱더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현대에서의 Body Art는 한 개인의 독자적 예술일 뿐만 아니라 무대, 조명, 음악은 물론 의상의 조화까지 이루는 Total Art로서의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다. 현대 Body Art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많이 따르고 있으며 오브제 기용 또한 모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재창조의 과정으로 새로운 표현 형식을 나타내며 소재의 제한성이 없이 새로운 장식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표현성이 확대되고 있다.

126) 김희정, “초현실주의 Art Make-up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서대학교 대학원, 2001)

V. 결 론

인류의 태동과 함께 시작됐던 바디 아트는 고대 원시사회에서부터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능적, 사회적 표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바디 아트는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 등을 통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신체 장식방법으로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의식화된 행위이자 표현의 양식이며 예술과 인간이 조화된 독창적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고대 원시인들은 바디 아트를 통해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였으며 자신의 힘과 용기, 능력,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트로피즘, 상대방에게 공포와 위압감을 주기 위한 테러리즘, 장식을 통해 악은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올 거라 믿는 토테미즘,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서 시선을 끌어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에로티시즘 등으로 표현되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토테미즘을 목적으로 하는 장식은 사라졌지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남아있으며 일부 계층의 부와 권력의 과시에서 트로피즘을, 펑크족이나 히피족 같은 하위 문화권에서는 테러리즘을, 일부 성인 남녀에게서는 에로티시즘을 목적으로 한 장식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피부색에 따라 장식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서는 채색, 상흔, 피어싱, 변형, 제거 등을 주로 사용했으며, 피부색이 옅은 종족에서는 색소를 피부에 침투시키는 문신의 방법을 주로 행했는데 간혹 변형, 제거, 피어싱의 방법도 사용되었다. 또한 각 시대의 문화를 달리하며 장식의 표현방법이 달라지고 색의 의미도 다양하다.

말케사스섬이나 마오리족은 문신이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장식이

요, 부와 명예, 지위를 상징하는 표식이었음에 반해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범죄자의 표식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다.

각 민족의 Body Art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 민족의 독자적 표식이나 문양이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 민족의 시대적, 역사적, 종교적, 미적, 생활 감정이 반영된 상징적 구성으로 그 민족의 기호성에 의해 구성되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민족적 사상과 예술적 혼은 신체를 생동감 있는 예술품으로 바꾸어 놓았고 많은 조형 예술에 영향을 주었으며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집트, 아프리카, 인디언들은 그들의 animism 세계관을 기하문양으로 표현해 냈는데 원은 영원과 전체성의 사상을 의미하며 북아프리카의 Berber 부족의 siyala 문양은 다산과 보호의 상징으로 마오리족의 나선형 무늬는 불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현대의 바디 아트에서도 각각의 무늬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비는 재생과 부활, 장미는 욕망, 정념, 유혹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에로틱한 표징으로 사용되며 새와 날개는 자유, 승리, 정령의 신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호랑이, 용, 도깨비, 해골 등은 용맹과 권력자의 상징으로 또 강한 생명력과 통찰력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각 문양들은 민족마다 각기 상징적 의미가 다르며 주로 자연 현상에서 얻고 있다. 장식에 사용되었던 각종 부속물들도 자연환경에서 얻어지는 물건들을 이용하였고 귀하거나 얻기 힘든 물건은 일부 특수 계층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무늬만이 아니라 색이 지니는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red는 아프리카와 그 외 여러 지역에서 피를 상징하거나 의학적인 효능과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삶과 기쁨의 색이 되고 어떤 곳에선 죽음과 슬픔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인도의 vishnu 신은 상황에 따라 다른 색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같은

사물이나 무늬라도 색에 따라 다른 상징적 힘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복식의 발달과 미 개념의 변화는 신체를 훼손하여 장식하는 것 보다는 신체를 보존하여 장식이 가능한, 장식방법을 선호함으로 인해 Body Art 는 도외시되었고 하위문화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독특한 가치관이 반영된 주변 문화로 여겨 일부 계층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이용되었던 Body Art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하이 패션에까지 도입되었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부상하게 되었다.

현대의 바디아트는 헤나, 스티커, 크리스탈, 반영구적 화장 등을 포함한 문신과 메이크업 및 바디 페인팅, 피어싱, 그리고 공연이나 패션쇼에서의 '분장'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고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는 창조적 모티브를 제공하여 타투룩(tattoo look)이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나는 등 패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Body Art의 영속적 성질로 인한 부정적 시각은 스티커 문신이나 크리스탈 문신 등으로 대체되었고 영구적 문신 또한 동적이고 시각적인 예술로 인식이 많이 전환되면서 저변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Body Art의 형태는 전통적 Body Art 방식의 재현과 인용의 형태로 나타나며 단 하나의 스타일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혼성 모방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완전한 모방이 아닌 재창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원시적 특성은 살리면서 새로운 매력을 부여하는 Retro 현상이다.

오브제의 기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와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행주기가 빨라지면서 영구적 속성보다는 빠른 교체가 가능한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Body Art는 미적 의식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위적 예술의 분야로도 자리잡고 있다. 작품의 세계가 사회를 비판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

거나 아니면 인체와 자연을 찬미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간에 살아있는 영혼과 육체에서 품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울동감은 생명력이 없는 다른 예술에 비해 훨씬 강한 메시지와 감동을 준다.

현대에서의 Body Art는 한 개인의 독자적 예술일 뿐만 아니라 무대, 조명, 음악은 물론 의상의 조화까지 이루는 Total Art로서의 면모 또한 고루 갖추고 있으며 소재의 제한성이 없이 새로운 장식요소를 사용함으로써 Body Art의 표현성이 확대되고 있다.

조형 예술로서의 Body Art는 장식 기술과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그 적용과 표현성에 있어서도 다양해져 예술적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계승, 발전의 가능성 또한 매우 밝고 크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Dick Hebdige, 이동현 역, 『하위문화 스타일의 의미』, 현실문화연구, 1998
- Frederick W.Shaffer, 『MOLA DESIGN 인디언 전통문양』
- Garba Ashiwaju, E.U.Enem, S.O.Duta 편저 황 춘섭 역 『나이지리아의 신체장식과 복식』 경춘사, 1993
- 김광언, 『김광언의 민속지-한국인의 음식, 집, 놀이, 풍물』 1994
- 빅토리아 에빈, 임 숙자 역 『신체 장식』 경춘사, 1988
- 徐進, 『古代刑罰과 形具』, 山東教育出版社, 1989
- 심우성 편역, 『신체의 미학』, 현대미학사, 1997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공저, 『복식문화』 교문사, 1996
- 이규태, 『한국인의 민속문화3-우리민속문화의 정체성』 신원문화사, 2000
- 이정옥, 조차, 이연순, 권미정, 『패션과 의생활』 형설출판사, 1995
- 임영주, 『한국 전통문양 자료집』, 미진사, 1996)
- 전규태, 『마지막 원시인』, 백문사, 1992
- 전선정, 안현경, 외2인,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 문화사, 2001
- 전완길, 『한국 화장문화사』, 열화당, 1987
- 쥘리 나타프, 김정란 역, 『상징, 기호, 표지』, 열화당, 1987
- 천지연 외3인, 『Face in make-up』, 청구 문화사, 2000
- 허균,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동아 출판사, 1991
- 許進雄, 洪喜 畝김, 『中國古代社會』, 동문선, 1991

〈학위논문〉

- 강병석, “Total Fashion 으로서의 make-up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김영경, “이집트 장식 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Art)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은영,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임정, “문신에 나타난 상징성과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희정, “초현실주의 Art Make-Up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정신, “신체적 조형 표현으로서 Body Painting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혜선, “조선 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 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손향미, “현대 패션 및 신체 장식에 나타난 혼성모방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유창호, “한국 전통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승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 장식의 미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은임, “화장문화의 전개와 화장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0

〈학술지논문〉

김주영, 이정후,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그라피티(Graffiti) 기법에 관한 연구” 복식 문화 연구 제 5권 3호, 1997

문국진, “문신을 통해 보는 에로스와 타나토스” 녹십자의보 제28권 제6호

문형진, “문신의 습속과 그 유래 국제 지역 연구” 제 4권 4호

오세중, “문신을 소유한 장정들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대한 군진 의학

이서희, “신체 장식에 관한 연구” 건양 자연 과학 논문집” 제5호 2001

이효진, “현대 서양 복식에 나타난 TATTOO 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4호, 1999

황춘섭, 정현주, “마오리족 전통복식과 문신 고찰” 복식 문화 연구 제6호 1995
학술지 제25권 제1호, 1994

〈사전〉

Encyclopaedia 『Britannica』,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1968

J . C Cooper , 이윤기 역, 『세계문화 상징사전』, 도서 출판 까치, 1991

『동아원색대백과사전』, 동아 출판사, 1988

『두산세계 대 백과사전』, 제10권, 두산동아, 1996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1992

『민족 문화 대 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외국서적〉

Faris, J.C., 「Nuba Personal Art 」 London : Duckworth, 1978

Fashion Theory Volume 3. Issue 1

Hassrick, R.B., 「The North American Indians」 London : Octopus, 1975

Karl Groning, 「Decorated Ski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6
Riechie,D. and I.Buruma, 「The Japanese Tatto」 (New York and Tokyo,
Weatherhill, 1980
Rufus c. Camphausen 「Return of tribal」 (PARK STREET PRESS 1997
Ted polhemus, 「 Streer style」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4
Terence Barrow, 「Maori Art」
W.J.Phillips, 「 Maori Carving Illustrated」 Reed Books, 1955

〈인터넷 자료〉

<http://preview.britannica.co.kr>

<http://www.balhaetattoo.com>

<http://www.beegy.com>

<http://www.edinburgh-tattoo.co.uk>

<http://www.firstview.com>

<http://www.gayatattoo.com>

<http://www.ktma.co.kr>

<http://www.kttf.com>

<http://www.scorpion21.com>

<http://www.sussas.com>

<http://www.taegutattoo.com>

<http://www.tattoos.com>

<http://www.tattoooworld.co.kr>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ve Peculiarity and Shape of the Body Art

**(CENTERING AROUND A LOCAL PECULIARITY AND
THE CHANGE OF THE TIMES)**

Moon, Jung Eu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School of Hansung University

As for the body art which started with the quickening of mankind, diverse methods are being used so as to satisfy the instinctive and social expression desire of mankind up to the modern society that civilization developed extremely since ancient primitive society.

Body art may be referred to as the conscious act to make image into form by mobilizing all the methods to be able to express visu-ally on human body, the expression style and the original art that art and human beings harmonize as the method for temporary or permanent body decoration through scar, tattoo, coloring, removal and transformation etc.

Body art is the manifestation of instinctive aesthetic expression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and bodily protection means, and it reflects the culture and society phe-nomenon of the period.

To examine the expression feature of body art of each race gets to discover the original indication and pattern of the race.

This is because natural environment and daily affairs constituted by suiting to the taste of the race through reflecting the periodical, historical, religious and aesthetic life feeling of their own race, and body art may be referred to as the symbolical act to re-reflect such consciousness.

The racial thought and artistic soul of these changed body into lively work of art, had influence on many plastic arts, and became the motive power of development.

The symbolical meaning of body art were reduced and the concept of beauty changed by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clothing. Thus, the method of permanent body decoration came to be regarded as subculture.

However, as new aesthetic consciousness came to fore by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and the body art which was used intermittently by partial classes were introduced to high fashion, it came to rise by receiving recognition for new meaning and value.

The introduction of body art to high fashion and the temporary decoration methods such as sticker tattoo or crystal tattoo and henna contributed toward converting the existing negative recognition for body art and aroused the popularization, and also it contributed toward widening the artistic domain of body art.

The body art of modern times is appearing with diverse forms and methods such as tattoo or makeup, body-painting, piercing, and make-up at performance or fashion show etc.

including henna, sticker, crystal, and semi-permanent makeup etc., and it is occupying wide domain up to the domain of fashion by appearing as new style to be tattoo look through offering creative motive to fashion

designers. Besides, it is receiving recognition as one field of theatrical art and avant-garde art as well as the course for the expression of aesthetic conscious world.

Body art in modern fashion is doing more colorful and diverse trials in the use of object and motif.

Then, it is deemed that this trial will contribute toward the popularization and universalization of body art all the more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ique and it will enable body art to settle as more original and creative plastic art.